TRADE FOCUS

2024년 42호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

동향분석실 김우종 연구위원(평가/전망)
조의윤 수석연구원(환율)
양지원 연구원(세계경제)
옥웅기 연구원(원자재)
김나율 연구원(동향, IT)
통상연구실 조성대 실장(통상환경)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24년 42호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2024년 11월 27일
디자인·인쇄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CONTENTS

01 2024년 수출입 동향 및 평가 ····· 7

02 2025년 무역·통상환경 전망 ····· 18

03 2025년 수출입 전망 ····· 27

04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전망 ····· 30

참고문헌 ····· 56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향분석실 김우종 연구위원

02-6000-5032 wj.kim@kita.or.kr

요약

【 2024년 수출입 동향 】

■ **(동향) 1~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5,658억 달러, 수입은 2.1% 감소한 5,263억 달러, 무역수지는 396억 달러 흑자**

● **(수출)** AI 수요 증대에 따른 반도체 중심 IT 품목 및 자동차 수출 호조, 對미주·아시아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상승세 견인

- 반도체는 단가 회복·수요 확대에 따라 연중 내내 높은 수출 증가세 유지, 2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한 자동차는 역기저 효과 및 전기차 캐즘에도 선방

* '24년 1~10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 (반도체) 47.2 (자동차) 2.0 (선박) 20.2 (컴퓨터) 67.6

* '24년 1~10월 지역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 (중국) 7.2 (미국) 12.9 (아세안) 5.2 (일본) 2.1 (EU) -1.6

● **(수입)** 천연가스·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와 정말화학원료·반도체장비 등이 전체 수입감소 유발

* '24년 1~10월 품목별 수입 증가율(전년동기비 %) : (원유) 3.3 (천연가스) -19.6 (석탄) -19.3 (반도체장비) -3.3

● **(수지)** 견조한 수출로 인한 수출 주도형 무역수지 흑자 지속

■ **(평가) IT·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 주도로 경쟁국 대비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제성장 주도**

● 올해 반도체·자동차 등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주요 수출 대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 시현, 안정적 무역흑자 회복

↘ 2024년 5대 특징 및 평가(요약)

① 가파른 수출 성장세로 역대 최대 실적에 도전

■ 수출증가율(%) (中) 2.8 (美) 2.7 (독일) -0.6 (한) 9.5 ■ 수출 순위(1~9월) : (5) 일본 (6) 한국 (7) 이탈리아

② 수출 주도 경제성장과 점진적 낙수효과

■ GDP성장(1~3Q, 2.3%) 기여도(%p) : (순수출) 2.3 (내수) –0.1 ■ 수출의 낙수효과는 3분기 이후 점진적 확대 기대

③ 수출 이끈 2대 주역 : 반도체, 자동차 최대 실적 기대

■ 반도체 단가·수요 증가 영향, 역대 최대 1,390억불 기대 ■ 자동차 3년 연속 최대 실적 경신 기대

④ 최대 수출 대상국, 격변 속 다시 중국으로

■ 대미-대중 수출 격차(억불) : ('24.上) +11.5 (1~10) -44.4 ■ 수출 품목 다변화는 대미 수출이 양호

⑤ 무역수지 적자 탈피, 안정적 흑자 기조 회복

【 2025년 무역환경 및 수출입 전망 】

■ **(무역환경)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안정화,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 점진적 소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와 유사한 성장세(3.2%)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미·EU 등 선진국의 인프라·과학기술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 정책 심화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
  * 세계 경제 성장률('24^{e}→'25^{p}, %) : (IMF) 3.2 →3.2 ('25년 전망치 -0.1%p) (OECD) 3.2→3.2 (전망치 불변)
  * WTO 세계 교역 증가율('24^{e}→'25^{p}, %) : 2.7 → 3.0 (전망치 –0.3%p)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점진적 글로벌 소비 회복 등에 따라 점차 하락할 전망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각국의 관세장벽 설치 등은 상방 압력으로 작용
  * 환율 전망(블룸버그 32개 IB 전망 기반 추정, 원/달러) : ('24.4Q) 1,379 ('25.1Q) 1,367 (2Q) 1,361 (3Q) 1,351
- 국제유가는 OPEC+ 감산 완화와 미국의 증산, 원유수요 증가세 둔화로 배럴당 70달러 중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EIA, '24.10월)
  * 국제유가 전망(WTI기준, EIA, 달러/배럴) : ('24.4Q) 72.0 ('25.1Q) 73.7 (2Q) 74.5 (3Q) 73.2 (4Q) 71.2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디커플링 심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대정책 확대, 온쇼어링 강화 예상

■ **(수출입 전망) 2025년 수출은 1.8% 증가한 6,970억 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 달러,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 예상**

-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수출은 글로벌 IT 수요 지속으로 올해 이상의 실적 예상, 자동차(역기저 효과, 해외생산)·석유제품(유가 하락) 등은 수출 감소
- 국제유가는 하락이 예상되나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물량 확대로 총수입 증가
- 무역흑자는 지속되겠으나 올해와 비교해 흑자 폭은 감소할 전망

2024년 및 2025년 수출입 전망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e}	2025년^{p}
수 출 (증가율)	6,836 (6.1)	6,322 (-7.5)	6,850 (8.4)	6,970 (1.8)
수 입 (증가율)	7,314 (18.9)	6,426 (-12.1)	6,380 (-0.7)	6,540 (2.5)
수 지	-478	-104	470	430
무역규모	14,150	12,748	13,230	13,510

자료 : 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

품목	2023년	2024년e	2025년p	2025년 업황 전망
반도체	986 (-32.5)	1,390 (40.9)	1,420 (2.2)	메모리 단가는 1분기 하락 후 2분기부터 반등,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수출은 상저하고로 2024년 규모를 소폭 상회할 전망
자동차	709 (31.1)	723 (2.1)	710 (-1.9)	3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역기저 효과 및 미국 공장 가동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소폭 감소 전망
일반기계	534 (4.6)	536 (0.3)	560 (4.5)	미국·중동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반도체·자동차 관련 제조 장비 수요 증가 등 영향
석유제품	520 (-17.3)	500 (-3.9)	460 (-7.9)	국제유가 하락 속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정체 전망, 글로벌 경쟁 가속, 국내기업 가동 조정 등으로 수출 물량 감소
석유화학	457 (-15.9)	485 (6.0)	482 (-0.5)	신증설,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수출 여력 증대, 신흥국 경제 회복으로 물량 확대, 유가 하락 및 공급 과잉은 하방 요인
철강	352 (-8.5)	336 (-4.6)	350 (4.3)	선진국 수요는 완만한 속도로 증가, 인도·아세안 등 신흥국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철강 수요 견인
자동차부품	230 (-1.6)	230 (0.2)	228 (-0.9)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HEV) 및 내연기관 부품을 중심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선박	218 (19.9)	233 (7.0)	255 (9.4)	컨테이너선 비중 축소, 친환경·고부가 LNG선이 점차 대체,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도 호재로 작용
디스플레이	186 (-12.1)	188 (1.3)	195 (3.6)	온디바이스 AI 본격화에 따른 교체 수요 발생, 고부가가치 패널(LTPO) 적용 확대로 중대형 OLED 수출 개선 전망
무선통신기기	155 (-10.2)	178 (15.0)	195 (9.6)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 수출 성장세 예상,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 기능 도입으로 고성능 부품 수요 증가 전망
섬유	109 (-11.3)	106 (-3.3)	106 (0.3)	중저가 제품의 경쟁 심화, 고부가·첨단 산업용 소재 및 K패션 관련 수요는 확대 전망
가전	79 (-1.0)	80 (0.8)	81 (1.1)	미국 주택시장 회복으로 프리미엄 대형 가전 수요 회복, AI 가전 보급 확대 등에 따라 북미 및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 완만한 회복세 기대
컴퓨터	74 (-53.3)	125 (67.6)	135 (8.1)	AI 서버 투자 확대로 고사양 SSD의 수출 확대, AI PC 시장 성장, 윈도우 10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른 사무용 PC 교체 수요 기대

자료: 한국무역협회

Ⅰ 2024년 수출입 동향 및 평가

01 총괄

■ **2024년 1~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5,658억 달러, 수입은 2.1% 감소한 5,263억 달러, 무역수지는 396억 달러 흑자**

● **(수출)** AI 수요 증대에 따른 IT품목 수출 호조와 對미주·아시아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상승세 견인

- 금년 1~10월 반도체(47.2%), 컴퓨터(67.6%), 무선통신기기(12.7%) 등 IT 품목 호황기가 찾아오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국가별로는 EU(-1.6%)를 제외한 중국(7.2%), 미국(12.9%), 아세안(5.2%), 홍콩(53.5%) 등 주요 지역 대부분 수출 증가

● **(수입)** 천연가스·석탄 가격 하락 영향으로 1~10월 수입은 2.1% 감소

- 국제유가는 보합세를 보이나,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3대 에너지 수입은 5.8% 감소

  * '24.1~10월 3대 에너지 가격 증감률(전년동기비 %) :
  (브렌트유, 달러/배럴)-1.2 (천연가스 TTF, 달러/MWh)-21.4, (석탄 뉴캐슬, 달러/톤)-25.8

● **(수지)** 견조한 수출 성장세에 따른 수출 주도형 무역수지 흑자 지속

- 화석연료 수입 감소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주요 수입국에 대한 적자 폭은 축소,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홍콩으로의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

2024년 1~10월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구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7~10월	1~10월
수출액	3,070	3,252	6,322	3,349	2,310	5,658
(증가율)	(-12.4)	(-2.4)	(-7.5)	(9.1)	(8.8)	(9.0)
수입액	3,333	3,093	6,426	3,119	2,143	5,263
(증가율)	(-7.8)	(-16.4)	(-12.1)	(-6.4)	(5.0)	(-2.1)
무역수지	-263	159	-104	230	167	396

자료: 한국무역협회

02 수출 동향(1~10월)

■ 2024년 1~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5,658억 달러 기록

-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상승세 지속

- (가공단계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반등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자본재(4.0%)와 소비재(4.8%) 수출도 상승세 유지

  * '24년 1~10월 가공단계별 수출 증가율(%) : (중간재)10.9, (소비재)4.8, (자본재)4.0, (1차산품)-13.4

↘ 2024년 월별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구분	2023년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0월
금액	6,322	548	521	565	561	580	573	572	576	586	575	5,658
(증가율)	(-7.5)	(18.2)	(4.2)	(3.0)	(13.6)	(11.4)	(5.6)	(13.5)	(10.9)	(7.1)	(4.6)	(9.0)

자료: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13대 주력 수출 품목 중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의 수출이 크게 확대

- **(IT)** AI용 반도체 및 SSD(컴퓨터) 수요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폰·태블릿 등 완제품 수요도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IT 기기 수출 증가

  * AI 반도체 수요 전망('22→'28, 억 달러) : (온디바이스) 314→602 (데이터센터) 97→730
  *글로벌 IT기기 수요 증가율('24, 전년비%) : (스마트폰) 5.8 (태블릿) 7.2 (PC) 0.3

- **(자동차·부품)** 북미 지역으로의 완성차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럽으로의 완성차 및 부분품 수출은 감소

  * 對북미 완성차 수출 증가율('24.1~10월, 전년동기비%) : (미국) 16.6 (캐나다) 15.3
  * 對EU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율('24.1~10월, 전년동기비%) : (완성차) -28.3 (자동차부품) -5.7

- **(석유화학·석유제품)** 신증설·가동률 제고를 통한 물량 중심 수출 증가세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세 혼재

  * 국제유가 평균(브렌트유, 달러/배럴) : ('23년 1~10월) 82.2 → ('24년 1~10월) 81.2

- **(선박류)** 엔데믹 이후 물동량 확대에 따른 신규 선박 발주 증가 지속, 신조선가(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을 지수화한 값) 및 수출이 모두 증가

  * Clarkson 신(新)조선가 지수('98.1=100): ('22.12)161.81 ('23.12)178.36 ('24.6)187.23 ('24.9)189.96

13대 주력 품목 수출 동향('24.1~10월)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비중 %, 비중 %p)

구분	2023년			2024년 1~10월			(b-a)
	금액	증가율	비중(a)	금액	증가율	비중(b)	
반도체	986	(-38.2)	(15.6)	1,150	(47.2)	(20.3)	(4.7)
자동차	709	(31.1)	(11.2)	591	(2.0)	(10.4)	(-0.8)
석유제품	520	(-17.3)	(8.2)	427	(-0.6)	(7.5)	(-0.7)
일반기계	534	(4.6)	(8.5)	427	(-1.6)	(7.5)	(-0.9)
석유화학	457	(-15.9)	(7.2)	406	(6.5)	(7.2)	(-0.1)
철강	352	(-8.5)	(5.6)	278	(-6.6)	(4.9)	(-0.6)
선박류	218	(19.9)	(3.4)	200	(20.3)	(3.5)	(0.1)
자동차부품	230	(-1.6)	(3.6)	189	(-1.8)	(3.3)	(-0.3)
평판디스플레이	186	(-12.1)	(2.9)	158	(4.2)	(2.8)	(-0.2)
무선통신기기	155	(-10.2)	(2.4)	141	(13.2)	(2.5)	(0.1)
컴퓨터	74	(-53.3)	(1.2)	103	(67.6)	(1.8)	(0.6)
섬유류	109	(-11.3)	(1.7)	87	(-3.5)	(1.5)	(-0.2)
가전	79	(-1.0)	(1.3)	68	(1.6)	(1.2)	(-0.1)
총수출	6,322	(-7.5)	(100.0)	5,658	(9.0)	(100.0)	(0.0)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가/지역별) 1~10월 중 EU(-1.6%)를 제외한 중국(7.2%), 미국(12.9%), 아세안(5.2%), 홍콩(53.5%) 등 주요 지역 대부분 수출 증가

- **(중국·미국)**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대중국 수출이 반등(7.2%)하고 대미수출이 가파른 증가세(12.9%)를 보이며 중국과 미국은 각각 우리나라의 1·2위 수출 대상국 기록
- **(ASEAN)** 필리핀(12.3%), 말레이시아(11.3%), 베트남(9.8%)으로의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금년도 대ASEAN 수출은 회복세에 안정적으로 진입
- **(EU)** 1~10월 수출은 헝가리, 독일, 폴란드 등 주요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둔화되며 1.6% 감소했으나 EU의 대세계 수입 감소폭(1~8월, -6.4%) 고려 시 양호한 수준

  * EU 對세계 수입증가율(%, USD 기준): ('22)26.0 ('23)-13.7 **('24.1~8)-6.4**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비중 %, 비중 %p)

국가·지역명	2023년			2024년 1~10월			(b-a)
	금액	증가율	비중(a)	금액	증가율	비중(b)	
중국	1,248	(-19.9)	(19.7)	1,100	(7.2)	(19.4)	(-0.3)
미국	1,157	(5.4)	(18.3)	1,055	(12.9)	(18.6)	(0.3)
아세안	1,091	(-12.6)	(17.3)	946	(5.2)	(16.7)	(-0.5)
EU	682	(0.2)	(10.8)	568	(-1.6)	(10.0)	(-0.7)
홍콩	252	(-8.9)	(4.0)	293	(53.5)	(5.2)	(1.2)
대만	276	(3.6)	(4.4)	264	(61.6)	(4.7)	(0.3)
일본	290	(-5.2)	(4.6)	245	(2.1)	(4.3)	(-0.3)
중남미	202	(-23.0)	(3.2)	243	(17.8)	(4.3)	(1.1)
중동	179	(-4.9)	(2.8)	157	(-2.7)	(2.8)	(-0.1)
총수출	6,322	(-7.5)	(100.0)	5,658	(9.0)	(1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03 수입 동향(1~10월)

■ 2024년 1~10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5,263억 달러 기록

●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2024년 월별 수입은 증가와 감소세가 혼재

● (가공단계별) 자본재 수입은 소폭 증가했으나 소비재·중간재·1차산품 수입이 감소세를 주도

* '24년 1~10월 가공단계별 수입증가율(%): (소비재)-2.5 (중간재)-2.8 (1차산품)-2.0 (자본재)0.8

↘ 2024년 월별 수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구분	2023년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0월
금액	6,426	544	482	523	548	531	491	538	541	521	543	5,263
(증가율)	(-12.1)	(-7.8)	(-13.0)	(-12.2)	(5.4)	(-2.0)	(-7.5)	(10.5)	(6.0)	(2.2)	(1.7)	(-2.1)

자료: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천연가스·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와 더불어 정밀화학원료·자동차·반도체제조장비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

● **(에너지)** 1~10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

- 원유(3.3%) 수입은 증가했으나 천연가스(-19.6%)와 석탄(-19.3%) 단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

* 3대 에너지 가격('23.1~10월 → '24.1~10월, 전년동기비 %) : (브렌트유, 달러/배럴) : 82.2 → 81.2(-1.2%), (천연가스 TTF, 달러/MWh) : 44.9 → 35.3(-21.4%), (석탄 뉴캐슬, 달러/톤) : 182.8 → 135.6(-25.8%)

● **(에너지 外)** 이차전지 수요 둔화세가 지속되며 수산화리튬 등 정밀화학원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도 축소

*'24.1~10월 주요 품목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 : (정밀화학원료)-43.9 (자동차)-13.4 (반도체제조장비)-3.3

↘ 품목별 수입 동향(수입 상위 품목, '24.1~10월)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비중 %, 비중 %p)

순위	품목명	2023년			2024년 1~10월			(b-a)
		금액	증가율	비중(a)	금액	증가율	비중(b)	
1	원유	862	(-18.7)	(13.4)	728	(3.3)	(13.8)	(0.4)
2	반도체	624	(-16.6)	(9.7)	588	(13.3)	(11.2)	(1.5)
3	천연가스	360	(-27.9)	(5.6)	240	(-19.6)	(4.6)	(-1.0)
4	석유제품	232	(-13.3)	(3.6)	211	(10.6)	(4.0)	(0.4)
5	반도체제조용장비	209	(-9.8)	(3.3)	170	(-3.3)	(3.2)	(0.0)
6	석탄	202	(-28.8)	(3.1)	140	(-19.3)	(2.7)	(-0.5)
	총수입	6,426	(-12.1)	(100.0)	5,263	(-2.1)	(100.0)	-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04 무역수지 동향(1~10월)

■ 1~10월 무역수지는 396억 달러 흑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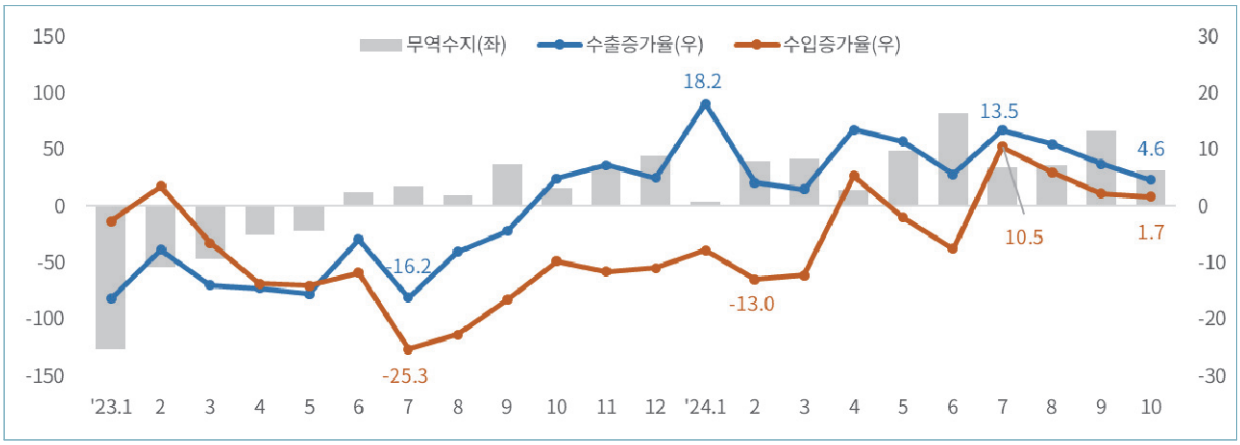
● 금년도 무역수지는 수출 회복세와 화석연료 수입 감소에 힘입어 1~10월 모두 흑자를 기록

2024년 월별 무역수지 동향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구분	2023년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0월
금액	-104	4	39	42	13	49	82	34	35	65	32	396

자료: 한국무역협회

월별 무역수지 추이('23.1월~'24.10월) (단위 : 억 달러, 전년동월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 카타르 등 주요 수입국에 대한 적자폭은 축소되고 미국과 홍콩으로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며 무역수지 흑자 기록

무역 적자 상위 5개국('24.1~10월) (단위 : 억 달러)

국가명	'23.1~10월	'24.1~10월	변동폭
사우디	-224	-221	3
일본	-160	-149	11
호주	-123	-120	3
UAE	-98	-114	-16
카타르	-124	-109	15
총계	-729	-713	16

주 : 변동액은 '23.1~10월 무역수지 대비 증감(+,-)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흑자 상위 5개국('24.1~10월) (단위 : 억 달러)

국가명	'23.1~10월	'24.1~10월	변동폭
미국	347	443	96
홍콩	176	274	98
베트남	221	246	25
인도	92	103	11
폴란드	69	66	-3
총계	905	1,132	227

주 : 변동액은 '23.1~10월 무역수지 대비 증감(+,-)
자료: 한국무역협회

05 2024년 수출입 평가

① 가파른 수출 성장세로 역대 최대 실적에 도전

■ 우리 수출은 연중 내내 주요 경쟁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유지

- 1~9월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9.5%로 세계 상위 수출 대국의 증가율을 압도
  * '24.1~9월 주요국 수출 증가율(CEIC, %) : (중국) 2.8 (미국) 2.7 (독일) -0.6 (일본) -1.9 (한국) 9.5 (이탈리아) -0.4

- 수출 상위 10개국 중 13개월 이상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9월 현재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6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

- 지난해 6위, 7위를 기록했던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넘어 현재 5위인 일본 뒤를 바짝 쫓고 있음

  - 올해 9월까지 일본과의 수출 격차는 118억 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
    * 한일 수출 격차(억 달러) : ('10) 3,037 ('16) 1,496 ('20)1,288 ('22) 632 ('23) 850 ('24.1~9)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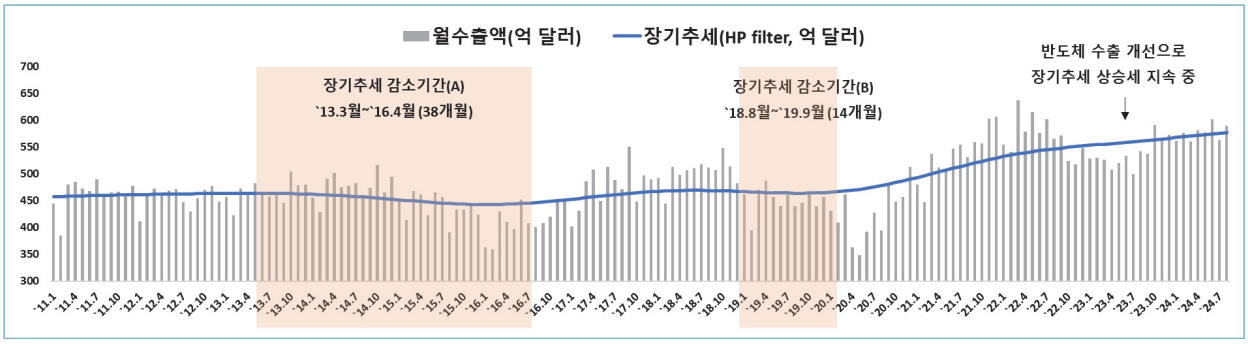
- 한국이 수출 6위를 기록한 적은 2015년, 2017년, 2018년, 2022년 등 네 번뿐임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저점을 찍고 우상향 지속
    *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WTO, %) : ('23.1Q) 2.54 (2Q) 2.63 (3Q) 2.67 (4Q) 2.78 ('24.1Q) 2.76 (2Q) 2.83

■ 지난해 말 우리 수출의 장기추세 변곡점에서 우상향 유지

- 우리 수출은 올해 빠른 성장세로 돌아서며 지난해 수출 장기추세의 변곡점에서 상승 모멘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

↘ 수출의 장기추세 곡선



주 : 월수출액은 한국은행 상품수출액(계절조정)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② 수출 주도 경제성장과 점진적 낙수효과

■ 수출 성장세가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주도

-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미국(2.8%)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평균 1.8%)을 상회(IMF, '24.10)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글로벌 IT경기 회복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세를 꼽음

- 1~3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2.3% 중 상품 및 서비스 순수출 기여도는 2.3%p로 내수 부진(-0.1%p) 상쇄

  -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국은행 3분기 GDP(속보, 10/24) 중 재화수출 증감률이 전기대비 –0.6%를 기록한 것은 그간 수출이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해 온 데 따른 역기저 효과, 계절조정 등 요인 때문

    * 재화 수출 증감률(한국은행, 전기비%) : ('23.1Q) 4.9 (2Q) 0.3 (3Q) 2.0 (4Q) 3.9 ('24.1Q) 1.6 (2Q) 1.1 **(3Q) -0.6**

- 다만, 국내 전망 기관들은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 내수 회복 부진 등으로 전망치를 소폭 하향

  * '2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24.11) : (KDI) 2.2% (0.3%p↓) (금융연구원) 2.2% (0.3%p↓)

IMF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2023	2024^{e}	2025^{p}
전 세계	3.3	3.2	3.2
선진국	1.7	1.8	1.8
미국	2.9	2.8	2.2
유로존	0.4	0.8	1.2
일본	1.7	0.3	1.1
한국	1.4	**2.5**	**2.2**
신흥개도국	4.4	4.2	4.2

자료 : IMF('24.10)

실질 GDP 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전년동기비%, %p)

	'24.1Q	2Q	3Q	1~3Q
국내총생산	**3.3**	**2.3**	**1.5**	**2.3**
내수	-1.0	-0.2	0.8	**-0.1**
최종소비지출	0.5	0.8	1.1	0.8
총자본형성	-1.2	-0.9	-0.3	-0.9
순수출	4.3	2.4	0.9	**2.3**
재화·서비스 수출	3.8	3.8	2.7	3.1
재화·서비스 수입	-0.6	1.4	1.9	0.8

자료 : 한국은행('24.10)

■ 수출 성장이 내수 확장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3분기 들어 가시화

- 소비, 투자 등을 포함한 내수의 GDP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1%p로 부진했으나 3분기 0.9%p로 큰 폭의 반등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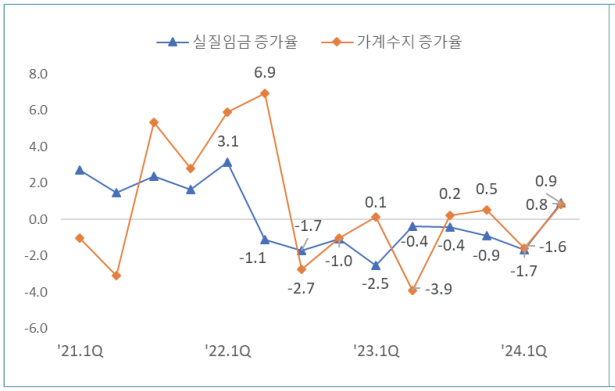
  - 특히 민간 소비지출(전기대비 +0.5%), 설비투자(+6.9%)가 플러스 증가로 반등

-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022년 2분기 이후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오다가 지난 2분기 소폭 반등(전년동기비 +0.9%)
  *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기준
  *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x 100

  - 동기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실질)도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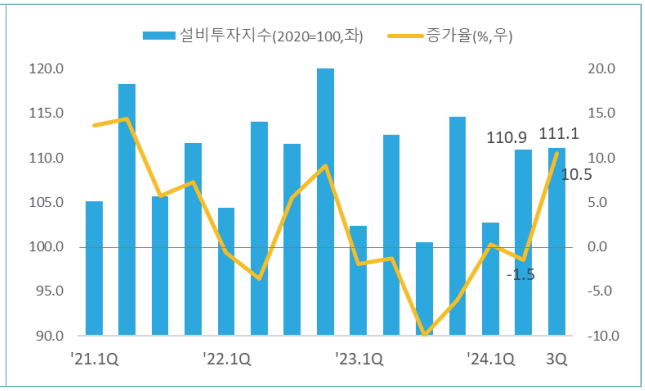
-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이어 오다가 3분기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

실질임금·가계수지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고용노동부, 통계청

국내 설비투자지수 (단위 : 지수, %)



자료 : 통계청

■ 제조업 분야 고용 증가율 감소, 여전히 높은 체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회복세를 저해하는 하방 요인

- 제조업 고용 감소는 수출이 역성장하던 지난해부터 이어졌고 올 상반기 소폭 반등했으나 7월 이후 감소세 지속
  *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통계청, 전년동기비%) : ('24.7) -0.2 (8) -0.8 (9) -1.1 (10) -0.7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점차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식품(2.5%) 등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부담
  *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전년동월비%): ('24.1) 2.8 (3월) 3.1 (5월) 2.7 (7월) 2.6 (9월) 1.6 (10월) 1.3
  * 식품 생활물가지수 증가율(전년동월비%): ('24.1) 4.9 (3월) 5.2 (5월) 3.9 (7월) 3.4 (9월) 2.6 (10월) 2.5

■ 향후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연말 성과급을 통한 개인 소득 증대 등에 따라 수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내수 확대로 이어질 것

③ 수출 이끈 2대 주역 : 반도체, 자동차 최대 실적 기대

■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7.2% 증가해 전체 수출을 견인

● 지난해 침체를 겪었던 글로벌 IT 경기 개선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단가 회복, AI산업 확장으로 인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수요 확대 등 영향

- 올해 전세계 IT 수요는 지난해 대비 7.2% 증가한 5.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가트너, 10월)되며, D램과 낸드 가격(고정가격 기준)도 전년대비 상승세

*D램(8Gb) 고정가격 증가율(기재부, %) : ('24.1) -0.6 (4월) 44.8 (6월) 54.4 (8월) 57.7 (10월) 13.3
*낸드(128Gb) 고정가격 증가율(기재부, $) : ('24.1)14.0 (4월) 1.7 (6월) 28.3 (8월) 28.3 (10월) -20.9

●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20.1%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 우리 수출을 견인한 최대 요인으로 꼽음

- 반도체 수출 증가분(369억 달러, 1~10월 기준)은 전체 수출 증가분(467억 달러)의 78.9%를 차지

● 올해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22년 1,292억 달러 및 정부 목표치 1,3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역대 반도체 수출 실적 순위(억달러) : (1위, '22) 1,292 (2위, '21) 1,280 (3위, '18) 1,267

■ 2위 품목인 자동차는 매년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며 반도체와 함께 우리 수출을 지탱

● 자동차 수출은 3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에 도전하며 10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 2022년 8년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한 이후 지난해에도 31.1% 증가한 709억 달러 기록

- 특히 2022년과 2023년 반도체 수출이 부진(각각 1.0%, -23.7%)했을 때 자동차가 전체 수출을 뒷받침(16.4%, 31.1%)

●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전기차 캐즘 등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며 선방

■ 그 밖에 화장품, 변압기, 전선 등도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주요 수출 품목 중 올해 최대 실적 기대 품목(MTI 3단위 기준) (단위 : 억달러, %)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류	반도체 장비	전력용기기
수출액(1~10월)	1,150	591	84	71	59
(증가율)	(47.2)	(2.0)	(20.0)	(27.9)	(8.2)

자료 : 무역협회

④ 최대 수출 대상국, 격변 속 다시 중국으로

■ 올해 우리 대미·대중 수출 순위가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으나 10월 현재 중국이 1위를 탈환

●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22년 만에 추월, 미국은 상반기 수출 대상국 1위였으나 7월부터는 중국이 다시 역전

- 미국 경기 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조, 투자 확대 등으로 대미 수출은 1~10월 기준 사상 최대인 1,055억 달러를 기록하며 8년째 상승세 지속 중

  * 대미 해외직접투자 10% 증가시 대미 수출은 0.202% 상승(무역협회, '24.5)

-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수입 수요 개선 지연 등으로 지난 2년간 대중 수출이 감소해 왔으나 글로벌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올 2분기부터 점차 회복세(1~10월 1,100억 달러)

  * 대미-대중 수출 격차(억 달러) : ('24.上) +11.5 ('24.1~7) -0.8 (1~8) -14.7 (1~9) -27.6 **(1~10) -44.4**

  * 한국의 수출 대상국별 증가율('24.1~10, %) : (세계) 9.0 **(미국) 12.9 (중국) 7.2** (베트남) 9.8 (대만) 61.6

■ 수출 품목 다변화 측면에선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비중은 28.2%, 대중국 반도체는 35.4%, 상위 5대 품목 비중도 미국은 49.7%, 중국은 52.9%로 대중국 수출 품목이 상대적으로 편중

-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함께 지탱하나, 대중 수출은 반도체 집중으로 IT 경기 변화에 민감

  * 대미 수출증가율(%) : ('20) 자동차 0.1 **반도체 25.3** ('22) **자동차 29.6** 반도체 –10.3 ('23) **자동차 44.8** 반도체 –39.1

● 타일지수 분석에서도 대중 수출 편중도가 높았으나 최근 미국은 확대 추세

  * 타일지수('18→'24.上, 높을수록 편중) : (대미) 3.404→**3.458** (대중) 3.690→**3.507**

■ 미국과 중국의 제조 역량 강화 기조에 대응해 핵심 원료·부품 중심의 수출 전략 수립, 해외 투자에 따른 수출 대체효과 최소화, 양국 상호 보완적 수출 구조 확립 등 논의 필요

↘ 2024년 최대 수출 대상국 결정 요인 : 미국 vs. 중국

	미국('24.상반기 기준 1위)	중국('24.10월 누계 기준 1위)
긍정적 요인	• 견고한 경제성장률(3Q 2.8%)과 소비 • 높은 대미 수출증가율 유지(1~10월 15.5%) • 대미 투자 지속에 따른 수출 유발 • 9월 빅컷 이후 금리인하 기조 유지	• IT경기 회복에 따른 대중 반도체 수출 호조 •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 • 세계 최대 내수시장 보유, 잠재 성장성
부정적 요인	• 대미 자동차 수출 성장세 둔화 • 고용시장 불안 등 경기 위축 우려	•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회복 지연 • 기술 자립, 중간재 수요 감소, 경쟁 심화 • 대중 투자감소로 수출 유발 기대x

⑤ 무역수지 적자 탈피, 안정적 흑자 기조 회복

■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주요 흑자 품목의 흑자 폭 확대

- 올해 높은 수출 성장률을 보인 반도체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300억 달러 증가

  - 이는 1~10월 전체 무역수지 증가분(전년동기대비 579억 달러)의 51.8% 차지

- 동기간 자동차(+28억 달러), 선박(+23억 달러), 배터리(+22억 달러), 무선통신기기(+19억 달러)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의 흑자도 늘면서 전체 무역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회복

■ 에너지, 컴퓨터 등 주요 적자 품목의 적자 폭 축소

- 최대 적자 품목인 3대 에너지 중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영향

  - 상반기 천연가스 및 석탄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3.1%, 36.7% 하락 후 소폭 반등했으나 최근 다시 하락세로 전환함에 따라 10월까지 천연가스 수입액은 23.7%, 석탄은 20.2% 감소

    * 천연가스 가격 증감률(TTF기준, %) : ('24.1H) -33.1 (7월) 10.5 (8월) 9.6 (9월) -1.8 (10월) -14.2

    * 석탄 가격 증감률(호주뉴캐슬, %) : ('24.1H) -36.7 (7월) 0.1 (8월) -0.6 (9월) -12.2 (10월) 4.3

- SSD 수출이 크게 증가(88.5%)한 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노트북 수입은 보합세(2.4%)로 전체 컴퓨터 적자 폭이 크게 축소

■ 다만, 대중 무역수지 적자 고착화는 우려

- 지난해 한국은 한·중 수교(1992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반도체 수출 회복세에도 10월까지 61억 달러 적자

- 중국의 기술력 향상, 자급률 확대 등으로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등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데 기인

↘ 주요 품목 무역수지 및 증가액 (단위: 억 달러)

		'23.1~10(A)	'24.1~10(B)	증가액(B-A)
흑자확대	반도체	262	562	+300
	자동차	448	476	+28
	선박	146	169	+23
	건전지·축전지	4	26	+22
적자축소	천연가스	-298	-240	+58
	컴퓨터	-51	-5	+46
	석탄	-174	-140	+34
	반도체장비	-121	-99	+22

자료: 무역협회

↘ 대중국 무역수지 현황 (단위: 억 달러)

	'19	'21	'23	'24.10
전품목	290	243	-180	-61
IT	152	237	110	161
반도체	190	269	164	198
디스플레이	66	63	20	20
비IT	138	6	-290	-222
합성수지	60	81	54	39
석유제품	73	67	33	23
화장품	30	48	27	20

자료: 무역협회

Ⅱ 2025년 무역·통상환경 전망

01 세계 경제

■ 2025년 세계 경제는 약 3%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불확실성 상존

●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안정과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전망

*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블룸버그, YoY%): ('21) 4.7 → ('22) 8.6 → ('23) 6.7 → ('24) 4.5 → ('25) 3.5

* OECD G20 경기선행지수(CLI, 기준=100): ('24.1월) 100.02 → (3월) 100.08 → (6월) 100.14 → (9월) 100.25

- (상방)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그린 전환·인프라·과학기술 투자, 중국의 경기 회복세 등이 가시화 될 경우 세계 경제는 4% 후반까지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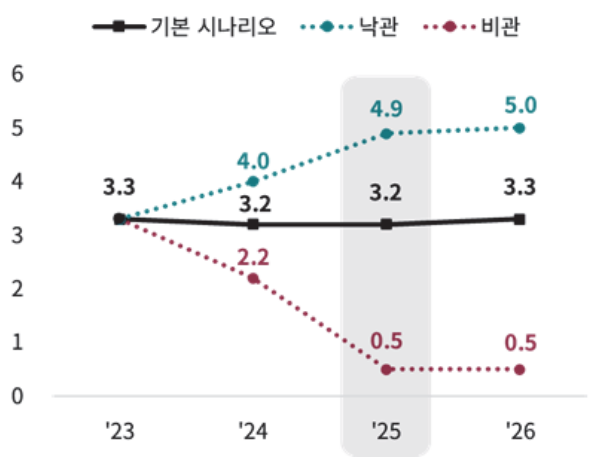
- (하방) ❶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갈등 상수화, ❷신흥국 부채 및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❸기후 위기 등 리스크 확대 시 1% 미만 성장 가능성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투자 위축, 낮은 총요소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이 성장을 제약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IMF, YoY%): ('23) 3.3 → ('24) 3.2 → ('25) 3.2 → ('26) 3.3 → ('27) 3.2 → ('28) 3.1 → ('29) 3.1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비%)



낙관적 전망	•**(투자)** EU 등 선진국의 친환경, 인프라, 과학기술 투자 확대 •**(신흥국)** 중국 등 구조적 개혁
2025년 세계경제 전망 (기본 시나리오)	•**(금융)** 미국, 유로존 금리 인하, 일본 금리 인상으로 중립 금리 수렴 •**(원자재)** 유가 소폭 하락,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안정화
비관적 전망	•**(무역)** 미국, 유로존, 중국의 관세 인상 및 정책 불확실성 증대 •**(신흥국)** 자본유출, 국가 채무 불이행 및 중국의 부동산 위기 •**(원자재)** 기후위기, 지정학적 긴장 속 원자재 가격 인상 충격

자료: IMF('24.10월)

■ 내년도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1% 후반 수준 전망

● **(미국)** 미국 경제는 1.6~2.2% 성장할 전망으로 선진국 평균(1.7~1.8%)을 상회하나, 역기저 효과와 노동시장 과열 진정으로 인한 소비신장세 둔화로 올해 대비 성장세 약화

* 美 경제성장률 전망(IMF, YoY%): ('22) 2.5 → ('23) 2.9 → ('24^{e}) 2.8 → ('25^{p}) 2.2

* 美 비농업고용 순증감(블룸버그, 천명): ('21.3Q) 1,884 → ('22.3Q) 1,188→ ('23.3Q) 640 → ('24.3Q) 557

● **(유로존)** 팬데믹 이후 유로존 경기는 지난해 저점을 기록한 뒤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며 내년 1% 초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실질임금 상승이 소비 견인, 통화정책 완화로 인한 투자 확대 등 역내 수요 증가가 긍정 요인

■ 신흥국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와 유사한 성장폭(4%대) 유지

● **(중국)** 올해 내수 부진을 저가 수출로 일부 방어했으나 내년에도 제조업 경기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4%대 중반 성장에 그칠 전망

* 中 제조업 PMI(블룸버그, 기준=50): ('24.5월) 49.5 (6월) 49.5 (7월) 49.4 (8월) 49.1 (9월) 49.8 (10월) 50.1

● **(인도)** 모디 총리 3연임,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부상, 세계 최대 규모인 14.6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내년 6.5~6.8%의 가파른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비%, %p)

구분	IMF				OECD				World Bank			
	2023	2024^{p}	2025^{p}	조정폭 ('24.7월 대비)	2023	2024^{p}	2025^{p}	조정폭 ('24.5월 대비)	2023	2024^{p}	2025^{p}	조정폭 ('24.1월 대비)
전 세계	3.3	3.2	3.2	-0.1	3.1	3.2	3.2	0.0	2.6	2.6	2.7	0.0
선진국	1.7	1.8	1.8	0.0	-	-	-	-	1.5	1.5	1.7	+0.1
미국	2.9	2.8	2.2	+0.3	2.5	2.6	1.6	-0.2	2.5	2.5	1.8	+0.1
유로존	0.4	0.8	1.2	-0.3	0.5	0.7	1.3	-0.2	0.5	0.7	1.4	-0.2
일본	1.7	0.3	1.1	+0.1	1.7	-0.1	1.4	+0.3	1.9	0.7	1.0	+0.2
신흥국	4.4	4.2	4.2	-0.1	-	-	-	-	4.2	4.0	4.0	0.0
중국	5.2	4.8	4.5	0.0	5.2	4.9	4.5	0.0	5.2	4.8	4.1	-0.2
인도	8.2	7.0	6.5	0.0	8.2	6.7	6.8	+0.2	8.2	6.6	6.7	+0.2
러시아	3.6	3.6	1.3	-0.2	3.6	3.7	1.1	+0.1	3.6	2.9	1.4	+0.5
브라질	2.9	3.0	2.2	-0.2	2.9	2.9	2.6	+0.5	2.9	2.0	2.2	0.0
남아공	0.7	1.1	1.5	+0.3	0.7	1.0	1.4	0.0	0.6	1.2	1.3	-0.2

자료: IMF('24.10월), OECD('24.9월), World Bank('24.6월)

■ 2025년 세계 상품교역량은 3.0% 증가할 전망이나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분절화 등은 세계 교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제조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수출이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4.7%)됨에 따라 글로벌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전망

- 중남미 수출(-0.1%), 중동 수입(-1.1%) 외 모든 지역의 상품교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단,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자국 우선주의 심화 가능성, 중동 지역 전쟁 확전 시 물류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세계 교역의 하방 리스크 존재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제한과 수출·투자통제 조치에 더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공약을 발표한 만큼 미·중 간 디커플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적 블록 내 교역 성장률은 –2.7%p 둔화에 그친 반면 블록 간 교역 성장률은 –5.0%p 하락하며 교역의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음(IMF, '24.10)

* 품목별 블록 내 대비 블록 간 교역 증가 속도 차(WTO, %): (광물) -13.2 (채소류) -6.3 (전체) -4.3 (기계류) -2.0

➘ WTO 세계 상품교역량 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비%, %p)

구분		2022	2023	2024		2025	
				전망 ('24.10월P)	조정폭 ('24.4월 대비)	전망 ('24.10월P)	조정폭 ('24.4월 대비)
전 세계		2.2	-1.1	2.7	+0.1	3.0	-0.3
수출	북미	3.9	3.7	2.1	-1.5	2.9	-0.8
	중남미	3.0	2.3	4.6	+2.0	-0.1	-1.5
	유럽	1.8	-2.6	-1.4	-3.1	1.8	-1.0
	아프리카	-2.5	4.3	2.5	-2.8	2.2	-0.2
	중동	3.8	1.1	4.7	+1.2	1.0	-1.2
	아시아	0.2	0.3	7.4	+4.0	4.7	-1.3
수입	북미	5.7	-2.0	3.3	+2.3	2.0	-1.3
	중남미	4.1	-4.5	5.6	+2.9	1.7	-1.7
	유럽	4.4	-5.0	-2.3	-2.4	2.2	-0.9
	아프리카	6.5	0.1	1.0	-3.4	1.1	-0.5
	중동	10.5	8.5	9.0	+7.8	-1.1	-3.2
	아시아	-1.0	-0.7	4.3	-1.3	5.1	+0.4

주 : 상품교역량(Merchandise Trade Volume) 기준
자료: WTO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24.4월, 10월)

02 환율

■ 하반기 시작된 美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전망

● 美 연준은 지난 9월 빅컷(50bp 금리인하)을 단행하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선회했으며 금리인하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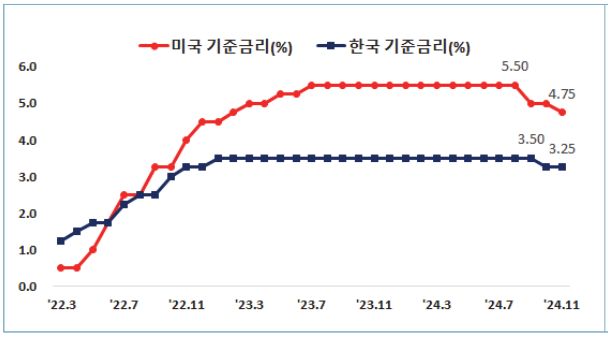
- 미 연준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 내년 역시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인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 美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블룸버그, '24.11) : ('24.4Q) 2.5% ('25.1Q) 2.2% (2Q) 2.1% (3Q) 2.3%

  * '25년말 美 기준금리 전망(CME FedWatch, '24.11) : **(3.75~4.0) 29.8%** (4.0~4.25) 24.0% (3.5~3.75)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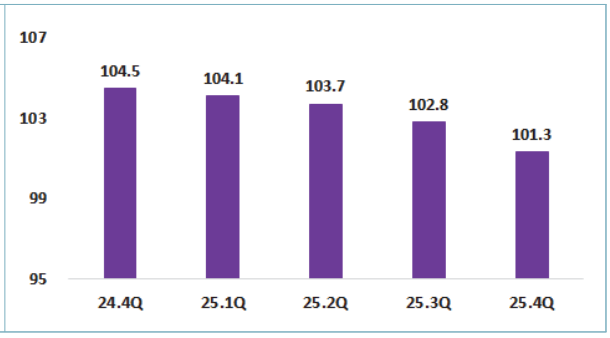
- 트럼프 당선 이후 안전자산 선호 및 미국의 관세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해 美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화 약세 폭을 줄일 전망

미국 및 한국 기준금리



자료 : 한국은행, 美 연준('24.11.11 기준)

미국 달러인덱스(DXY) 전망



주: DXY 하락은 달러화 통화가치 하락을 의미
자료 : Bloomberg 28개 IB 전망치 평균('24.11.18 기준)

■ 올해 强달러 속 상대적으로 절하됐던 엔화, 유로화, 위안화는 내년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엔화) 일본중앙은행(BOJ)은 기존 완화적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선회하며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내년에도 미국 기준 금리와의 격차를 좁혀나갈 전망(엔화 강세)

  * 일본 기준금리(%) : ('24.1월) -0.1 (3월) 0.1 (7월) 0.25

  * 일본 기준금리 전망(블룸버그, '24.11) : ('24.4Q) 0.4% ('25.1Q) 0.4% (2Q) 0.5% (3Q) 0.6%

● (유로화) 최근 유로존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고 독일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등 경기개선 징후가 나타나면서 유로화는 강보합세 전망

  * 유로존 실질 GDP(블룸버그, QoQ%) : ('23.4Q) 0.1 ('24.1Q) 0.3 (2Q) 0.2 (3Q) 0.4

- (위안화) 중국 실물경기 둔화로 올해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로 내년도 내수 회복이 기대되며 위안화는 올해 대비 강보합세 전망

주요 국제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값

구분	'24.11.8	'25.1Q	'25.2Q	'25.3Q	'25.4Q
엔화	152.6	144.9 (+5.3%)	143.1 (+6.9%)	141.2 (+8.3%)	140.2 (+9.1%)
유로화	1.07	1.10 (+2.9%)	1.11 (+3.1%)	1.10 (+3.0%)	1.11 (+3.7%)
위안화	7.18	7.11 (+0.9%)	7.12 (+0.8%)	7.09 (+1.2%)	7.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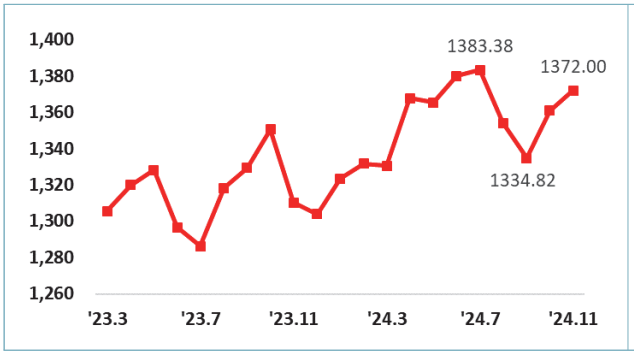
주 : 1) 수치는 주요 해외투자은행(10~12개) 전망치의 평균값(최고/최저 제외)
2) 엔화, 위안화는 1달러당 해당 통화, 유로화는 1유로당 달러
3) ( )는 '24.11.8 대비 절상 또는 절하 폭으로 +는 해당 통화 절상을 의미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 원/달러 환율은 올해 달러화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내년에는 미국 기준 금리인하 영향으로 1,350원 전후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

- (강세 요인)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완화 전망, 중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주요국 금리인하에 따른 글로벌 소비 및 투자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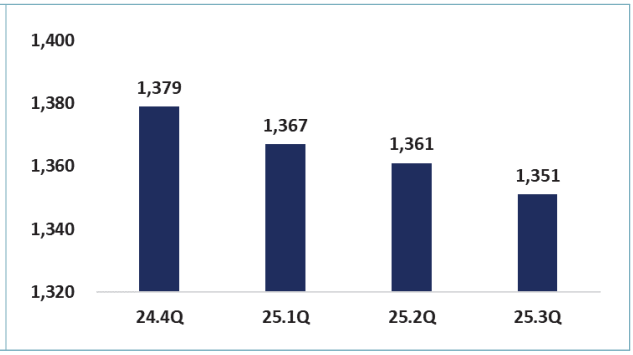
- (약세 요인) 글로벌 경기·수요 회복 지연, 주요국의 자국 중심 보호무역 조치 시행, 미국 관세인상으로 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월평균) (단위: 원/달러)



자료 : 한국은행(11월은 1~17일 평균값)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자료 : Bloomberg 32개 IB 전망치 참고(24/11/17 기준)

2025년 원/달러 환율 결정의 주요 변수

원화 강세 요인	원화 약세 요인
■ 미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기조 ■ 중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 ■ 주요국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회복	■ 지정학정 불안정 → 공급망 불안, 안전자산 선호 ■ 우리기업 해외설비투자 증가 ■ 미 관세인상 →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03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 (원유) 공급 과잉으로 인해 내년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Brent유 기준)

● (수요) 중국 및 글로벌 제조업 경기둔화의 여파로 내년 원유 수요 증가세가 감소할 전망

* '24년 글로벌 제조업 PMI(50 하회 시 경기 위축 국면, S&P Global) : (8월) 49.6 (9월) 48.8 (10월) 49.4

*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OPEC, 전년 대비, 백만 배럴/일) : ('24) 1.8 ('2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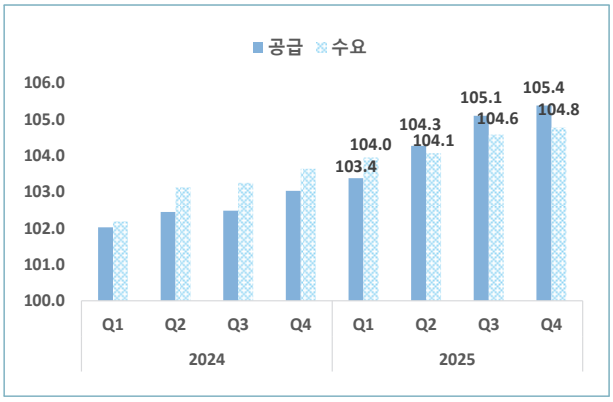
● (공급) OPEC+의 점진적 감산 완화와 미국의 증산 기조로 공급은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매장된 석유 및 가스 시추 채굴을 제한하는 환경규제 철폐 공약

* 미국 원유 생산량 추이 및 전망(EIA, 백만 배럴/일): ('22) 12.0 ('23) 12.9 ('24) 13.2 ('25) 13.5

● (유가) 원유 공급 과잉과 뚜렷한 수요 반등 요인의 부재로 유가의 점진적 하락이 예상됨

글로벌 원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EIA('24.10월)

주요 유종별 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간		WTI	BRENT
2024년	1분기	77.5	83.0
	2분기	81.8	84.7
	3분기	76.4	80.0
	4분기e	72.0	76.0
2025년	1분기p	73.7	78.0
	2분기p	74.5	79.0
	3분기p	73.2	77.7
	4분기p	71.2	75.7

자료: EIA('24.10월)

■ (비철금속)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탈탄소화 기조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원광 생산 차질은 비철금속 가격 상승 요인

● (수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철금속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동인

- 아마존, 메타, 구글, MS의 내년도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은 1,780억 달러(약 249조 원)으로 추정되며 올해 대비 11% 증가한 수준(Financial Times)

- 구리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구축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서, 전체 수요 중 에너지 전환用 비중이 올해 29%에서 2050년까지 61%로 증가할 전망(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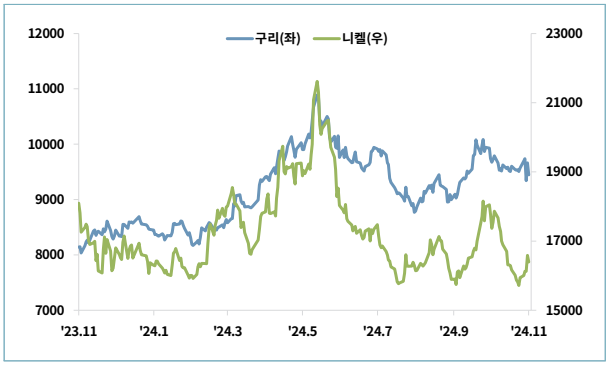
* '23년 美에너지부(DOE)는 구리·알루미늄·니켈 등을 에너지 핵심 소재로 선정

● (공급) 구리와 니켈 원광 생산 차질은 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구리) 칠레·파나마 구리 광산의 생산 차질 지속 및 중국 제련업체들의 감산 가능성

- (니켈) 라니냐 영향으로 세계 2대 생산국인 필리핀에 광산과 수출항 조업 차질 우려
  *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필리핀과 동남아 등지에 더 많은 강우를 유발

비철금속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주 : LME 3개월 선물시장 기준
자료: Bloomberg

주요 비철금속 가격 전망 (단위: 달러/톤)

구분	2024				2025		
	1Q	2Q	3Q	4Q^e	1Q^p	2Q^p	3Q^p
구리	8,867	9,599	9,829	9,600	9,800	9945	9990
알루미늄	2,337	2,524	2,611	2,515	2,600	2,600	2,640
니켈	16,749	17,291	17,514	17,000	17,350	17,450	17,000
아연	2,439	2,937	3,091	2,900	2,825	2,800	2,798

주 : 주요 IB 전망치의 중간값('24.11.11. 조회 기준)
자료: Bloomberg

■ (식량) 옥수수, 소맥, 대두 등은 주요 수출국의 작황 호조, 수출 증가 등 수급이 안정화되며 올해 대비 큰 폭의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지정학적 긴장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 가능성은 여전

- 옥수수, 소맥, 대두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이들 국가의 작황 여건이 글로벌 수급에 큰 영향
  * '23년 작물별 1위 수출국 비중(%, KCIF) : (옥수수) 미국 27.4, (소맥) 러시아 24.7, (대두) 브라질 59.1

세계 곡물 생산량 및 재고량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품목	'22/23	'23/24	'24/25
생산량	옥수수	1,160	1,226	1,217
	소맥	789	790	794
	대두	379	395	429
기말 재고량	옥수수	304	313	307
	소맥	274	266	258
	대두	101	112	135

자료 : 미 농무부(USDA, '24.10월)

주요 곡물 가격 전망 (단위 : 센트/부셸)

구분	2024				2025		
	1Q	2Q	3Q	4Q^e	1Q^p	2Q^p	3Q^p
옥수수	442	397	425	430	445	450	458
소맥	560	554	584	561	565	575	585
대두	1,191	1,151	1,057	1,000	1,043	1,104	1,123

주 : 주요 IB 전망치의 중간값('24.11.11. 조회 기준)
자료 : Bloomberg

04 통상환경

■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공격적 관세 조치, 대중국 고관세 부과·자본 유입 차단 등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 및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

● (관세 조치) 선거기간 중 예고한 보편 관세, 상호대응 세율 등 공격적 관세 조치는 의회의 법제·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 이 경우, 트럼프 1기 도입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외에도 관세법 338조, 통상법 122조 등 현행법상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음

  * 보편 관세 인상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상호대응세율은 미국산에 미국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산 수입품에 동등 수준으로 관세인상을 의미

● (미-중 디커플링)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등 수입제한과 각종 수출·투자통제 조치로 악화된 미·중 무역투자 관계는 당선인의 대중국 60% 관세 부과 선언에 따라 더욱 격화될 전망

- 미국은 트럼프 1기 양국간 무역 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와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

● (온쇼어링 및 제조업 강화)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산·미국인 우대(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자국 중심 기반 온쇼어링 추진

- 특히 중국산 및 중국 기업이 우회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검토(2026년 예정)에서 미국 중심적 변화가 예상됨

● (기후변화 정책 수정) 파리협약 재탈퇴, 전기차 의무화 폐기,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과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

- IRA의 경우 법개정 추진이 불가할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수혜 조건 강화 등으로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

■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폰 더 라이엔 2기 EU도 미국 관세 조치, 중국 저가 수출에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 중심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설 전망**

● (EU 정치 지형 변화) 유럽국민당(EPP)을 중심으로 한 중도 연정은 의석수 다수를 지켜냈고 극우 및 강경우파 정치그룹이 진보 계열 의석수 상당수와 중도 의석수 일부를 확보하며 약진

-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EPP 소속인 폰 더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무난히 연임에 성공

-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 폰 더 라이엔 2기는 대규모 산업지원책과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 강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EU 경제안보 전략도 본격 추진할 전망

  -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 목표와 산업경쟁력 제고(연 8천억 유로 투자 검토)

  - 산업전략 총괄 집행위원을 수석 부집행위원장으로 격상하고 통상·경제 안보 담당 위원을 산업전략 총괄 수석 부집행위원장 예하에 배속

- (규제 완화) 친환경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에 부담이 됐던 일부 규제는 속도 조절 가능성

  - 극우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중도우파도 기후 및 환경규제에 부정적인 입장

    * 삼림벌채금지규정(EUDR)의 시행이 1년 연기됐고 공급망실사지침(CSDDD) 중 기업 보고의무 등의 완화도 검토 중

■ 감소세에 있던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

- Global Trade Alert에서 확인한 2024년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989건으로 전년(5,039건) 대비 감소

  * 2024년 건수는 11월 20일 조회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고 있으나 늦게 확인되는 점, 아직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도입 건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조치) 가장 많은 유형은 국내 산업보조금(1,747건)으로 전체 보호조치의 58.4%를 차지했고 수출보조금을 포함한 수출지원 조치가 335건으로 11.2%를 차지

  - (산업) 업종별로는 철강 및 철강 철강제품이 633건으로 가장 많고 광물 627건, 기타 금속제품 321건 등 순

  - (조치국) 가장 많은 보호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 616건의 조치를 취했고 독일 263건, 브라질 255건, 중국 242건, 인도 193건 순

  - (대상국) 각종 보호조치로부터 가장 많이 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1,048건), 독일(949건), 이탈리아(929건), 프랑스(917건), 영국(887건) 등이며 한국은 849건

- 2025년 트럼프 2기의 관세조치 도입이 중국의 보복, EU 및 제3국의 유사 조치 등으로 심화할 경우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대폭 증가할 수 있음

  -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트럼프 1기 증가하기 시작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6,006건으로 단일 연도 최대 건수를 기록

    * 트럼프 1기 글로벌 보호조치 건수(건) : ('17) 2,871 ('18) 3,258 ('19) 3,123 ('20) 6,006
    * 바이든 행정부 글로벌 보호조치 건수(건) : ('21) 5,559 ('22) 5,905 ('23) 5,039 ('24) 2,989

III 2025년 수출입 전망

■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1.8% 증가한 6,970억 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 달러,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 전망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반면 자동차 수출은 소폭 하락
  - 연초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점차 회복하며 반도체 수출은 올해 이상의 실적 예상,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 등도 AI 산업 성장에 따른 글로벌 IT수요 지속으로 수출 지탱
  - 반면 자동차는 3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따른 역기저 효과 및 해외 생산 확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 전망
-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수입 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듯
-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지속되나 올해 대비 흑자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참고 | 2025년 수출입 전망의 전제

① 세계 경제는 점진적 인플레이션 안정화,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 투자 확대 등으로 3% 대 성장

* 경제성장률(IMF, '24^{e}→'25^{p}, %) : (세계) 3.2→3.2 (미국) 2.8→2.2 (EU) 0.8→1.2 (일본) 0.3→1.1 (중국) 4.8→4.5

② 미국 신 행정부의 즉각적인 대중국·대세계 관세 인상 조치 대신, 원만한 협상 또는 부과 시기 지연

* 세계 상품 무역량 증가율(WTO, %) : ('23) -1.1 ('24^{e}) 2.7 ('25^{p}) 3.0

③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글로벌 소비 회복 등에 따라 완만한 속도로 하락

* 원/달러 환율 전망(분기 평균, 블룸버그 IB 전망 기반 추정) : ('25.1Q) 1,367 (2Q) 1,361 (3Q) 1,351

④ 국제유가(브랜트유)는 OPEC+ 감산 완화·미국 증산 및 수요 둔화로 배럴당 70달러 중반 유지

↘ 2024년 및 2025년 수출입 전망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e}	2025년^{p}
수 출 (증가율)	6,836 (6.1)	6,322 (-7.5)	6,850 (8.4)	6,970 (1.8)
수 입 (증가율)	7,314 (18.9)	6,426 (-12.1)	6,380 (-0.7)	6,540 (2.5)
수 지	-478	-104	470	430
무역규모	14,150	12,748	13,230	13,510

자료 : 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

품목	2023년	2024년e	2025년p	2025년 업황 전망
반도체	986 (-32.5)	1,390 (40.9)	1,420 (2.2)	메모리 단가는 1분기 하락 후 2분기부터 반등,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수출은 상저하고로 2024년 규모를 소폭 상회할 전망
자동차	709 (31.1)	723 (2.1)	710 (-1.9)	3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역기저 효과 및 미국 공장 가동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소폭 감소 전망
일반기계	534 (4.6)	536 (0.3)	560 (4.5)	미국·중동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반도체·자동차 관련 제조 장비 수요 증가 등 영향
석유제품	520 (-17.3)	500 (-3.9)	460 (-7.9)	국제유가 하락 속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정체 전망, 글로벌 경쟁 가속, 국내기업 가동 조정 등으로 수출 물량 감소
석유화학	457 (-15.9)	485 (6.0)	482 (-0.5)	신증설,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수출 여력 증대, 신흥국 경제 회복으로 물량 확대, 유가 하락 및 공급 과잉은 하방 요인
철강	352 (-8.5)	336 (-4.6)	350 (4.3)	선진국 수요는 완만한 속도로 증가, 인도·아세안 등 신흥국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철강 수요 견인
자동차부품	230 (-1.6)	230 (0.2)	228 (-0.9)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HEV) 및 내연기관 부품을 중심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선박	218 (19.9)	233 (7.0)	255 (9.4)	컨테이너선 비중 축소, 친환경·고부가 LNG선이 점차 대체,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도 호재로 작용
디스플레이	186 (-12.1)	188 (1.3)	195 (3.6)	온디바이스 AI 본격화에 따른 교체 수요 발생, 고부가가치 패널(LTPO) 적용 확대로 중대형 OLED 수출 개선 전망
무선통신기기	155 (-10.2)	178 (15.0)	195 (9.6)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 수출 성장세 예상,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 기능 도입으로 고성능 부품 수요 증가 전망
섬유	109 (-11.3)	106 (-3.3)	106 (0.3)	중저가 제품의 경쟁 심화, 고부가·첨단 산업용 소재 및 K패션 관련 수요는 확대 전망
가전	79 (-1.0)	80 (0.8)	81 (1.1)	미국 주택시장 회복으로 프리미엄 대형 가전 수요 회복, AI 가전 보급 확대 등에 따라 북미 및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 완만한 회복세 기대
컴퓨터	74 (-53.3)	125 (67.6)	135 (8.1)	AI 서버 투자 확대로 고사양 SSD의 수출 확대, AI PC 시장 성장, 윈도우 10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른 사무용 PC 교체 수요 기대

자료: 한국무역협회

참고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출입 전망 산출 방법

■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❶일평균 수출입을 활용한 시계열 추세 분석(ARIMA) 및 ❷자체 수출입 물량·단가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❸13대 주력 품목 대상 업계 자문 결과, ❹주요 원자재 수입 물량·단가 등을 종합해 수출입 금액을 전망

➘ 수출입 전망 산출 방법

	세부 내용
일평균 시계열분석 (ARIMA)	■ **현재의 관측치를 과거 관측치와 백색잡음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단기 수출입 전망치 활용** - 단기 예측에 많이 활용되는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모형을 이용하되, 월별 통관일 차이, 계절성(추석, 설 등) 제거를 위해 일별 수출입 금액을 기준으로 기간별 전망치 산출 - 모형 식별 결과 (0,1,2)(0,1,1)s 로그 변환식으로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전망
수출입 물량·단가 모형	■ **수출입에 대해 세계수요(GDP, 교역량), 환율, 국제유가 등을 변수로 하는 수출입 물량, 단가 모형을 설정** - 회귀모형의 계수를 이용해 하반기 세계수요, 환율, 국제유가와 수출입 단가를 대입해 종속변수인 하반기 수출입 증가율 추정
업계 자문 (인터뷰)	■ **반도체, 자동차 등 13대 주력 품목 업종별 단체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자문을 통해 업종별 호조·부진 요소를 정성적으로 전망치에 반영·보정** - 품목별로 수출동향, 향후 수출환경 및 수출전망 예상치를 공유 - 총수출 대비 품목별 수출비중 및 업종별 단체가 제시한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을 별도로 고려해 이를 실제 전망시 가감
주요 원자재 수입 전망	■ **에너지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전망** - 향후 국내 경기 및 원자재 가격(원유, 석탄, 가스), 전문기관 수급 전망치 등을 활용해 물량과 단가를 추정, 총수입액 대비 비중 등 고려

IV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전망

01 반도체

■ (동향) 2024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0.9% 증가한 1,390억 달러 예상

● AI 서버 투자 확대, 신규 IT 기기 출시 등 수요 회복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전망

*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 ('24.1) 4,260.9 (3) 4,905.2 (6) 5,472.3 (9) 5,173.1 (11초) 5,290.5

* 역대 반도체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2) 1,292 (2위, '21) 1,280 (3위, '18) 1,267

-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 주도, 북미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CSP) 기업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 등 영향

● 지난해 대비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 전방 수요 업체의 전략적 재고 축적,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우려에 대비한 선수요 증가 등도 반도체 수출에 호재로 작용

- 다만, 글로벌 소비 시장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데 따른 IT 전방 수요기업의 재고 증가로 4분기 메모리 가격은 소폭 하락할 가능성

* D램(DDR4 8Gb) 고정가격(트렌드포스, 달러) : ('24.1Q) 1.80 (2Q) 2.10 (3Q) 1.95 (4Q^{e}) 1.65

■ (전망) 2025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420억 달러 전망

● AI 산업 성장으로 인해 AI PC·모바일, On-device AI 신제품 출시 등과 함께 자율주행, 국방용 AI 개발 등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5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억 달러) : (옴디아) 7,591 (+12.1%) (가트너) 7,167 (+13.8%)

● 빅테크 기업의 서버 투자 확대로 북미 지역과 반도체 신흥국인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강화는 중국向 수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 인도 반도체 시장 전망(Statista, 억 달러) : ('24) 76.9 ('25) 88.6 ('26) 100.4 ('27) 109.9 ('28) 123.1

↘ 2025년 반도체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986	-23.7	1,390	40.9	1,420	2.2

주 : MTI 831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2025년 AI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 및 신규 IT 기기(AI PC, On-Device AI 등) 출시 등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 성장은 이어질 전망

- IT 소비재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증가는 1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2분기 이후 반등하며 하반기에는 올해 수준으로 회복 기대(상저하고)
  * D램(DDR4 8Gb) 가격 전망(트렌드포스, 달러) : ('25.1Q) 1.57 → (2Q) 1.76 → (3Q) 1.98 → (4Q) 2.13

- (메모리)데이터센터 기업들이 AI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의 견조한 수요는 지속될 것, (시스템)신규 고성능 컴퓨팅(HPC) 적용 제품 및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수요 증가와 함께 파운드리 가동율 증가로 시장 성장 전망

- 올 하반기 초과 공급 전환 후 내년 상반기 이후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
  * DRAM 공급 초과율 전망(트랜드포스, %) : ('25.1Q) +1.6 (2Q) -0.3 (3Q) -6.2 (4Q) -5.1
  * NAND 공급 초과율 전망(트랜드포스, %) : ('25.1Q) +3.1 (2Q) -1.2 (3Q) -5.4 (4Q) -2.8

↘ 2025년 반도체 수출 환경

<table>
<tr><th>품목</th><th>세부 내용</th></tr>
<tr><td>업계 동향</td><td>■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2025년 반도체 시장 규모를 올해 대비 12.1% 성장한 7,591억 달러로 전망
↘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24.10) (단위 : 억 달러, %)
<table>
<tr><th colspan="2">전망 기관</th><th>2024e</th><th>2025p</th></tr>
<tr><td rowspan="2">옴디아</td><td>전체</td><td>6,769 (24.2)</td><td>7,591 (12.1)</td></tr>
<tr><td>메모리</td><td>1,687 (78.2)</td><td>2,114 (25.3)</td></tr>
<tr><td rowspan="2">가트너</td><td>전체</td><td>6,298 (18.8)</td><td>7,167 (13.8)</td></tr>
<tr><td>메모리</td><td>1,629 (77.3)</td><td>1,963 (20.5)</td></tr>
</table></td></tr>
<tr><td>경쟁국 동향</td><td>■ (미국) 차세대 반도체 및 양자컴퓨팅 관련 수출통제 규칙(IFR) 발표('24.9)
- 양자컴퓨터와 관련 장비·부품·소프트웨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수출 제한
* 한국은 미국의 수출통제시행국(IEC) 허가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
■ (중국) 미국 수출규제에 맞불,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발표('24.12 시행)
- 군용 및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제로 관리 강화</td></tr>
<tr><td>유가·원자재 영향</td><td>■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석유류 사용은 제조원가의 약 5% 이내로 유가 영향은 미미
-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신너, 이소프로필 알콜 등 일부 케미칼류에 제한적 영향</td></tr>
<tr><td>환율 영향</td><td>■ 국내 반도체 산업은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90% 내외) 달러 가치 상승은 반도체 수출 실적에 긍정적</td></tr>
</table>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2 자동차

■ (동향) 2024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723억 달러 예상

●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 수출이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오며 전체 자동차 수출 주도

- 대세계 자동차 수출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은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양호한 민간 소비로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

- 캐즘 현상으로 전기차 수출은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출이 이를 상쇄

  * '24.1~10 SUV 수출비중(대수 기준, %) : 전체 수출의 71.5 (CDV, Pickup 등 포함시 75.2%)
  * '24.1~10 수출대수 증감률(%) : (BEV) -22.0, (PHEV) -29.1, (HEV) +39.0 (FCEV) -63.5

● 미국 외 지역의 경기회복 지연과 최근 부품 수급 차질로 올해 자동차 수출은 상고하저가 될 전망

- 주요 부품사 파업(10월)으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 코로나19 이후 상승한 차량 가격과 고금리 지속에 따른 할부 금리 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이 하반기 수출 성장세를 둔화

■ (전망) 2025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710억 달러 전망

● 전기차 라인업 확대 및 EU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 강화로 전기차 수출 증가, 하이브리드 차량 소비 선호 지속 등 친환경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Casper EV, EV3, Ioniq9 등 신형 전기차 출시, 소형 세단부터 대형 다목적차량(CDV)까지 HEV 라인업 구축

- EU는 내년부터 신차 판매 평균 CO2 배출량 상한선을 1km 당 93.6g으로 강화(2021년 대비 15% 감축)

● 유로 지역과 신흥시장의 점진적 경기 회복세, 금리인하에 따른 구매 여력 개선은 상승 요인이나 최근 수년간 자동차 수출 최대 실적 경신으로 인한 역기저 효과, 북미 지역 생산능력 확대 등은 이를 제한

  * 역대 자동차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3년) 709 (2위, '22년) 541 (3위, '14년) 484
  * '24년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으로 현지 생산능력 확대 예상

↘ 2025년 자동차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	709	31.1	723	2.1	710	-1.9

주 : MTI 741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미국 신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해외 현지 생산 비중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

- 특히 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환경규제 강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음

2025년 자동차 수출 환경

품목	세부 내용
업계 동향	■ **국내 제조사는 전기차 신차출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HEV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EV 라인업을 확대하고 차세대 수소차 출시와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개발에 착수하는 등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을 구축할 예정** - (EV) '24년 하반기 EV3, 캐스퍼 일렉트릭, Ioniq9, KGM의 O100, '25년에는 EV4, EV5, PBV5, 르노코리아의 Polestar4 등 신형 전기차 생산 예정 - (HEV) '24년 하반기 그랑콜레오스, 신형 펠리세이드, 스포티지 F/L HEV, '25년 KGM 하이브리드 SUV 생산 준비, '27년 제네시스 브랜드 하이브리드 옵션 추가 예정 - '25년 차세대 넥쏘 출시 예정이며 '26년 양산 목표로 EREV 개발 계획
경쟁국 동향	■ **미국 상무부는 차량연결시스템(VCS)·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 발표('24.9)** -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30년 모델부터 시행 예정이나 소프트웨어 금지 시기('27년)는 도래가 이른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필요 ■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간 일반관세 10%에 7.8～35.3%p의 추가 관세를 부과, 최종 관세 17.8~45.3% 부과 확정('24.10)** ■ **중국은 내수시장 정체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선진국(미국, EU)의 견제 강화로 해외 생산 거점과 신흥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 '24.1~9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7.3% 증가한 431.2만대(연간 600만대 전망), 이 중 신에너지차 수출은 12.5% 증가한 92.8만대로 수출의 21.5% 차지 - 이에 따라 여타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합 심화 전망
유가·원자재 영향	■ **배터리 핵심 광물 가격 안정화로 전기차 생산원가 감소 기대** - 그러나 미국의 탈(脫) 중국산 소재·중간재에 대한 요구 확대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공급망 재편 필요 ■ **글로벌 시장에서 HEV와 PHEV 수요 확대로 인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 관련 금속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백금, 팔라듐 등 관련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필요** ■ **국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용 전선 가격의 상승 우려** - 차량용 전기 시스템과 데이터 전송 필요성이 확대되며 자동차용 전선 수요 증가, 전기차 1대당 구리 수요는 약 83kg으로 내연기관 대비 3.8배
환율 영향	■ **현재의 고환율 구조하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완성차 수출에 긍정적이나, 향후 미국의 성장둔화와 금리인하 본격화로 달러화 약세가 실현될 경우 환율 효과는 축소될 전망**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3 일반기계

■ (동향) 2024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536억 달러 예상

● 주요국 및 신흥국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기계류 수출이 증가했으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지연과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성장세 제약

-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지출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교통·건설 프로젝트 증가, 중동지역 설계·조달·공사(EPC) 프로젝트 발주, 신흥국 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건설장비 및 기초산업기계 등 수요 확대

- 다만 중국의 주택 가격·거래량 장기간 위축, 글로벌 제조업 경기회복 지연은 기계류 수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일반기계 수출 증가율('24.1~9, 전년동기비%) : (북미) 17.3 (중남미) 51.2 (중동) 26.7 (중국) -9.8 (EU) -18.1

- 품목별로는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기타 기계류 수출은 증가, 산업기계와 기초산업기계 등은 감소 예상

  * '24년 기계류 수출증가율^{e} : (기초산업기계) -2.9 (산업기계) -2.0 (기계요소공구 등) 4.4 (기타기계류) 10.8

■ (전망) 2025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60억 달러 전망

● 미국과 중동,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설비투자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 특히 국내기업의 대미 설비투자 확대,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증설 등은 기회 요인

  * 국내 주요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은 미국 테네시, 켄터키, 조지아, 인디애나, 애리조나 등지에 공장 설립 추진 중

● 반면 중국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의 범용 기계류 제품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 심화로 대중국 수출은 제약적 성장 예상

↘ 2025년 일반기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일반기계	534	4.6	536	0.3	560	4.5

주 : MTI 71, 72, 75, 79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주요국의 인프라·첨단산업 투자 확대는 일반기계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회복 불확실성 여전,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가격경쟁력은 위험 요인

➘ 2025년 일반기계 수출 환경

품목	세부 내용
업계 동향	■ **친환경·고효율 등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필요** - 범용 기계류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기술 향상과 가격경쟁력 우위는 우리 수출에 위협 - 전기식·수소식 친환경 건설기계, 고효율 제품 등 기술 차별화로 글로벌 수출 경쟁력 유지 필요
경쟁국 동향	■ **중국 기업 가격경쟁력 우위 및 자국산 우선 정책 추진** -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 저비용 대량 생산 구조로 가격 경쟁에서 우위 - 정책 지원 및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도입 가속화 - 글로벌 건설기계 주요 시장인 북미, 중동, ASEAN 등에서 중국 건설기계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기업과 경쟁 가속화 예상 ■ **일본의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증가 및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일본의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액(증감률%) : ('24. 8) 1조 6,815억원(61.6%) ■ **EU는 공급망, 환경 등 규범 관련 경제법안을 다수 추진 중으로 향후 기계류 수출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동차 CO2 배출 규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유가·원자재 영향	■ **중동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은 여전** - 건설·플랜트 관련 대형 프로젝트 연기 등은 일반기계 수요에 직접적 영향 ■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환율 영향	■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 미 연준은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이에 대한 기류변화도 감지 - 11월 미국 대선 이후 달러화 강세 및 원/달러 환율 급등, 미국 경기 호조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 - 고환율(원/달러)은 원자재 수입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기계 업계에 부담 및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4 석유제품

■ (동향)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500억 달러 예상

● 주요국 경기 부진과 석유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한 유가 및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하락했으나,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액 감소 폭을 일부 상쇄

- 대아세안 수출 확대와 평년 대비 낮은 규모의 국내 정기보수로 팬데믹 이후 최대 물량 수출 예상

* 석유제품 수출 물량(억b) : ('22) 5.01(+9.0%) ('23) 4.99(-0.5%) ('24^{e}) 5.19(+4.1%)

* 석유제품 수출 단가($/b) : ('22) 125.5(+51.3%) ('23)104.3(-16.9%) ('24^{e}) 96.2(-7.8%)

● 최대 수출 품목인 경유(1.6%)·휘발유(16.7%) 수출은 단가 하락에도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항공유 수출은 최근 고효율 항공 기종 도입 확대 등 영향으로 소폭 감소(-2.7%)

● 일본 정제설비 폐쇄와 여름철 대규모 유지보수, 엔저로 인한 여행수요 확대 등 요인이 맞물려 對日 수출이 증가했으나 호주, 미국, 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 지역별 수출 증가율('24.1~9, 전년동기비%) : (일) 42.9 (싱) 20.6 (호주) -4.7 (미) -7.3 (중) -18.2

■ (전망) 2025년 석유제품 수출은 7.9% 감소한 460억 달러 전망

● 올 3분기 이후 국제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정체 전망과 국내기업 가동 조정 등으로 수출 물량 감소 예상

* 석유제품 수출 단가($/b) : ('24^{e}) 96.2(-7.8%) ('25^{p}) 88.8(-7.4%)

* '25년 IEA 제품별 수요 전망('24.10, %) : (휘발유) +0.2 (경유) +0.6 (전체) +1.0

● 동남아시아 신흥국 경제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나 중국發 석유제품 공급 확대 및 경쟁 심화는 위기 요인

- IEA는 올해 동남아 5개국(인·말·싱·태·베) 석유제품 수요 증가분이 280만b/d로 중국(약 150만b/d) 및 인도(약 200만b/d)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의 對호주 석유제품 수출액이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출 경쟁 심화 예상

* 중국 對호주 석유제품 수출액(백만$) : ('23.1~9) 1,291 ('24.1~9) 1,781(+38.0%)

2025년 석유제품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제품	520	-17.3	500	-3.9	460	-7.9

주 : MTI 133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가 맞물려 전년 대비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중국산을 중심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의 경쟁은 심화될 전망

➘ 2025년 석유제품 수출 환경

<table>
<tr><th>품목</th><th>세부 내용</th></tr>
<tr><td>수출 여건</td><td>■ '25년 석유 수요는 103.8백만b/d, 석유공급은 104.9백만b/d로 각각 역대 최대치 갱신이 전망되나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수요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둔화
* IEA 석유수요 전망('24.10, 백만b/d) : ('24) 102.8 → ('25) 103.8, +1.0%
* IEA 석유공급 전망('24.10, 백만b/d) : ('24) 102.9 → ('25) 104.9, +2.0%
■ 정제설비 순증설
- 탄소중립 대응 등으로 미주·유럽 지역 설비는 폐쇄 예정인 반면, 설비증설은 중국·인도·중동 등 우리 수출 경쟁국들에 집중
* '25년 주요국 정제설비 변동 : (美) -14만b/d (獨) -42만b/d (印) +14만b/d
■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 확대
- '27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의무화에 따라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
* (EU) '25년 2% 시행, (싱가포르) '26년 1% 검토 (인도) '27년 1% 검토</td></tr>
<tr><td>경쟁국 동향</td><td>■ 중국, 인도 등 경쟁국의 러시아 원유 도입 규모 유지
- 중국, 인도는 가격 상한제를 이용, 여전히 러시아 석유류 55% 이상을 도입 중
➘ 러시아 석유류 수입 추이('24.10) (단위 : 백만b/d, %)
<table>
<tr><th></th><th>'21</th><th></th><th>'22</th><th></th><th>'23</th><th></th><th>'24.1~9</th><th></th></tr>
<tr><th></th><th>물량</th><th>점유율</th><th>물량</th><th>점유율</th><th>물량</th><th>점유율</th><th>물량</th><th>점유율</th></tr>
<tr><td>중국</td><td>1.6</td><td>21.3</td><td>1.9</td><td>24.7</td><td>2.4</td><td>30.4</td><td>2.4</td><td>31.8</td></tr>
<tr><td>인도</td><td>0.1</td><td>1.3</td><td>0.9</td><td>11.7</td><td>2.0</td><td>25.3</td><td>1.9</td><td>25.3</td></tr>
<tr><td>전체</td><td>7.8</td><td>100.0</td><td>8.1</td><td>100.0</td><td>7.9</td><td>100.0</td><td>7.6</td><td>100.0</td></tr>
</table>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
■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쿼터 확대, 인도 글로벌 수출 점유율 확대 추세 지속
* 中 석유제품 수출쿼터(백만t) : ('22) 37.25 ('23) 39.99 ('24) 41.00
* 印 석유제품 세계 수출점유율(%) : ('20) 5.6 ('21) 6.7 ('22) 8.0 ('23) 8.7</td></tr>
<tr><td>유가 및 대외여건</td><td>■ (유가) 산유국(OPEC+, 사우디) 증산에 따른 수급 개선으로 '24년 대비 유가 하락 및 석유제품 가격 하락 전망, 단 러-우 사태·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요인 관련 변동성
- OPEC+는 약 220만b/d의 점진적 증산(월 18만b/d) 시점을 '24년 말로 연기
- 사우디는 재정유가를 포기하고 12월부터 1년간 100만b 증산 계획 검토
■ (대외여건) 미 대선 이후 대외정책 변화 주시
- 미국 신행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변화로 유가 및 석유 수요 변동성 확대 전망</td></tr>
</table>

자료 : 대한석유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5 석유화학

■ (동향) 2024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485억 달러 예상

● 기저효과로 인한 가동률 상향 및 신증설 설비 본격 가동에 따른 수출 여력 확대로 물량 증가

* 석유화학제품 수출 물량(천 톤) : ('23) 36,770 ('24^{e}) 38,893(+5.8%)

* 국내 에틸렌 설비 가동률(%) : ('23.1H) 70.7 (2H) 77.3 ('24.1H) 81.5 (2H^{e}) 80 내외

●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년 대비 수출 단가는 소폭 하락

* 석유화학제품 수출 단가($/톤) : ('23) 1,243 **('24^{e}) 1,230(-1.0%)**

* 생산능력·수요 증가율(전년 대비 %) : [생산능력] ('23) 4.3 ('24^{e}) 2.4 / [수요] ('23) 2.3 ('24^{e}) 1.8

● 품목별로는 지난해 기저효과 및 일부 지역 수요 회복 등으로 대부분 증가

- 미국 및 베트남 수요 증가(합성수지), 튀르키예 의류산업 생산증대(합섬원료), 대체재인 천연 고무 생산량 감소 및 북미 중심 자동차 수요 증가(합성고무) 등 영향

■ (전망) 2025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482억 달러 전망

● 신증설·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수출 여력 증대, 아세안 신흥국의 양호한 경제 성장세로 수출 물량은 점진적으로 증가 예상

* 석유화학제품 수출 물량(천 톤, %) : ('24^{e}) 38,893 ('25^{p}) 39,377(+1.2%)

* 주요 신증설 예정(제품, 시기) : (GS칼텍스) 에틸렌·프로필렌, '24.12 (롯데GS화학) 부타디엔 '24.12
(한화솔루션)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25.9

* IMF 아세안 경제성장률 전망('24.10월, %): ('23) 4.0 ('24^{e}) 4.5 ('25^{p}) 4.5

● 내년도 유가 하락과 함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수출 단가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톤) : ('24^{e}) 1,230 **('25^{p}) 1,225(-0.4%)**

- 2025년 글로벌 에틸렌 신증설의 약 80%가 중국에 집중돼 역내 공급과잉 심화 예상

* Nanshan Group, Petrochina Jilin 등 중국 석화기업의 약 670만톤 규모 신증설 전망

↘ 2025년 석유화학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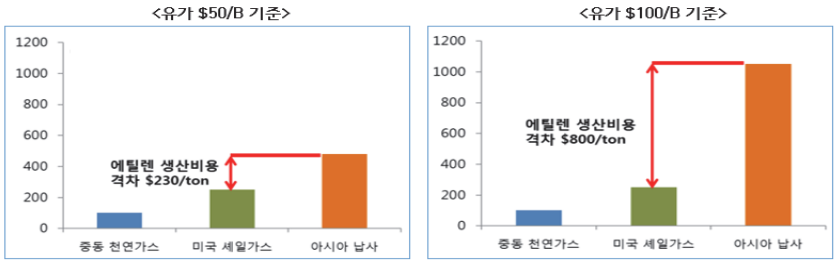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화학	457	-15.9	485	6.0	482	-0.5

주 : MTI 21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중국을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신증설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은 2028년까지 지속될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며, 각국의 신규 설비투자 축소 등으로 점진적인 수급 균형 회복 및 수출 확대 예상

➘ 2024년 석유화학 수출 환경

<table>
<tr><th>품 목</th><th>세부 내용</th></tr>
<tr><td>업계 동향</td><td>■ '25년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4억톤, 수요는 3.4% 증가한 1.9억톤, 공급과잉은 '28년까지 확대 전망
➘ 2024-2028 에틸렌 생산능력, 수요, 과부족 전망 (단위 : 백만 톤, 전년비%)
<table>
<tr><th></th><th>2024</th><th>2025</th><th>2026</th><th>2027</th><th>2028</th></tr>
<tr><td>생산능력(A)</td><td>231(2.4)</td><td>237(2.5)</td><td>242(2.3)</td><td>258(6.4)</td><td>269(4.5)</td></tr>
<tr><td>수요(B)</td><td>184(1.8)</td><td>191(3.4)</td><td>197(3.5)</td><td>204(3.3)</td><td>210(3.0)</td></tr>
<tr><td>공급과잉(A-B)</td><td>46.4</td><td>45.9</td><td>44.8</td><td>53.6</td><td>59.1</td></tr>
</table>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S&P Global</td></tr>
<tr><td>경쟁국 동향</td><td>■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자급률 증진 정책에 따라 '27년까지 대규모 설비 증설 계획
- 2025년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6,007만 톤, 수요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5,012만 톤 전망
* 규모의 경제, 정부 보조금, 러시아 産 원유 사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만 톤/년) : ('20) 3,218 ('25e) 6,007 ('27p) 7,225</td></tr>
<tr><td>유가·원자재 영향</td><td>■ 국제유가가 안정적일 경우 고유가 시기에 비해 나프타 기반 에틸렌 계열제품(PE, PVC 등)의 가격경쟁력에 긍정적
- 저유가 시기에는 북미·중동의 셰일·천연가스 등 저가 원료 기반 제품과 생산원가 차이가 크지 않음
- 다만, 저유가 상황은 수출 단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수출 규모는 감소
➘ 원료별·유가별 에틸렌 생산원가 비교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td></tr>
<tr><td>환율 영향</td><td>■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 모두 국제가격(달러화)으로 거래돼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다만, 환율 상승시 나프타, LPG 등 원재료 수입 부담도 동반 상승해 업계 부담으로 작용</td></tr>
</table>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6 철강

■ (동향) 2024년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336억 달러 예상

● 주요국 철강 수요 정체, 중국발 과잉 공급에 따른 수출 증가로 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우리 수출액은 감소

- 우리 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에 집중하며 수출 물량은 증가했으나 해외 수요 둔화 및 과잉 공급으로 저가 경쟁이 심화되며 수익성 악화

  * 철강재 수출 단가($/톤) : ('22) 1,283 ('23) 1,093 ('24.1Q) 1,040(–8.2%) (2Q) 1,044(–9.2%) (3Q) 1,006(–6.4%)

  *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지난해(9천만 톤 이상)에 이어 올해에도 1억 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 상대적 수익성이 좋은 선진국 시장과 철강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인도·멕시코 등의 신흥국 수출은 증가한 반면, 건설경기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과 대지진 이후 수출이 급증했던 튀르키예向 수출은 감소

  * 대중국 철강 수출(천톤) : ('21) 3,499 ('22) 2,883 ('23) 2,357 ('24.1~9) 1,718(–10.9%)

  * 인도의 철강 수요(백만톤) : ('21) 106 ('22) 116 ('23) 133 ('24^{e}) 143(+8.0%)

■ (전망) 2025년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50억 달러 전망

● 선진국 수요는 완만한 속도로 증가, 인도·아세안 등 신흥국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철강 수요를 견인

  *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율 전망(Worldsteel, '24.10, %) : (전세계) 1.2 (EU) 3.5 (북미) 1.6 (아세안) 3.5 (인도) 8.5 (중국) -1.0

- (판재류) 철강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물량 기준 약 25%)을 차지하는 열연강판 수출은 주요국의 중국산 견제로 인해 일부 반사이익 예상

- (강관류) 미국 에너지용 강관이 주력 수출 제품이나 최근 미국의 한국산 견제 강화, 향후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상존

2025년 철강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철강	352	-8.5	336	-4.6	350	4.3

주 : MTI 61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글로벌 수요 회복 진전 등 철강 수출 환경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중국 부동산 내수 회복 지연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2025년 철강 수출 환경

<table>
<tr><th>품목</th><th>세부 내용</th></tr>
<tr><td>업계 동향</td><td>■ 주요국의 중국산 대상 무역구제 확대, 우회덤핑 조사 강화, 미국 PMS 조사 권한 강화 등 중국산 제품 견제 움직임 지속
■ 친환경 강재 수요 증가
- 풍력 발전용 후판, 전기자동차용 전기강판, 태양광 발전 구조물 소재(도금강판) 등 친환경 강재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초기 단계</td></tr>
<tr><td>경쟁국 동향</td><td>■ '25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1.2% 증가 예상
➘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 (단위 : Mt, 전년비%)
<table>
<tr><th></th><th>전세계</th><th>EU28</th><th>북미</th><th>중국</th><th>아세안</th><th>인도</th></tr>
<tr><td>2024e</td><td>1,751
(-0.9)</td><td>137
(-1.5)</td><td>131
(-0.9)</td><td>869
(-3.0)</td><td>74
(4.5)</td><td>143
(8.0)</td></tr>
<tr><td>2025p</td><td>1,772
(1.2)</td><td>141
(3.5)</td><td>133
(1.6)</td><td>860
(-1.0)</td><td>77
(3.5)</td><td>156
(8.5)</td></tr>
</table>
자료 : Worldsteel('24.10)
■ 철강 수출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국내 잉여 물량을 저가 수출로 글로벌 철강 생태계 위협. 주요국의 중국산 견제 강화는 우리 기업에 기회 요인인 동시에 견제 대상이 되기도 함. 중국은 주요국 견제를 피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 (일본) 멕시코, 동남아 등과 FTA 체결로 한국 대비 가격경쟁력 유리. 해외 철강사들과 합작사 투자를 통해 현지 공급도 확대하는 추세
- (베트남) 중국 견제가 심해지는 사이 수출을 확대하면서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국으로 부상</td></tr>
<tr><td>유가·원자재 영향</td><td>■ '25년 원자재 가격은 올해 저점 대비 소폭 상승 전망
- (철광석) 철강 수요와 밀접하게 연결. 올해 9월 90달러/톤 대로 하락 이후 내년 1분기까지 반등세 지속 및 이후 점진적 하락 예상
* ('22) 140$/톤 ('23) 138 ('24.3Q) 124 (4Q) 130 ('25.1Q) 130
- (원료탄) 올 3분기 저점 기록 후 4분기 및 내년 1분기까지 저점 대비 높은 수준 유지, '25년 $200~$250/톤 사이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2) 352$/톤 ('23) 300 ('24.3Q) 205 (4Q) 210 ('25.1Q) 220</td></tr>
<tr><td>환율 영향</td><td>■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으로 생산 후 수출함에 따라 환율 영향은 대부분 상쇄
- (환율 상승) 수출 경쟁력은 향상하는 반면 원자재 수입 가격 부담
- (환율 하락)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되나 원자재 수입의 경쟁력 확보는 긍정적</td></tr>
</table>

자료: 한국철강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7 자동차부품

■ (동향) 2024년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230억 달러 예상

● 유로존 및 신흥시장 경기회복 지연 장기화, 지정학적 분쟁 확대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에서 SUV, HEV 차종의 견조한 판매로 조립용 부품 수출 증가

- (미국)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감소 추세에도 아이오닉5, EV9, EV3 등 전기차를 비롯해 싼타페, 투싼 등 하이브리드와 SUV 판매 호조로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
  * 1~9월 현대차-기아의 미국내 친환경차 판매(Wards Intelligence, 대) : ('23) 213,270 ('24) 243,435 (+12.6%)
  * 1~9월 현대차-기아의 미국내 EV 판매(Wards Intelligence, 대) : ('23) 70,111 ('24) 91,348 (+31.0%)

- (EU) 고금리에 따른 신차구매 수요 감소, 전기차 보조금 축소, 캐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완성차 매출 하락 및 부품 수출 감소

- (중국) 중국계 외 글로벌 브랜드의 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아차의 쏘넷 판매 호조와 글로벌 수출 기지 전략에 따라 생산 확대 및 부품 수출 증가

- (신흥시장)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활용 및 현지 생산 확대(멕시코), 국내 완성차의 투자 확대(아세안) 영향으로 해당 지역 수출 증가
  * 주요 대상국별 수출증가율('24.1~9, %) : (미국) 2.4 (EU) -6.3 (중국) 16.6 (멕시코) 13.9 (아세안) 2.7

■ (전망) 2025년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228억 달러 전망

● 당분간 전기차 캐즘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및 SUV 차량이 완충 역할을 하며 친환경, 내연기관 부품 수출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 현대차그룹은 EV 전용 공장인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HEV 병행 생산 검토→현지 진출한 부품업체도 전기차·HEV용 부품 유연 생산 계획 수립 중

- 미국 및 유럽의 對중국 견제 정책에 따른 중국산 자동차·부품 대체효과 기대

● 내년에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유럽은 친환경 부품 수출 회복 예상, 중국은 국내 완성차의 신규 전기차 투입 및 글로벌 수출 기지 전략으로 부품 수출 증가 지속 기대
  * EU CO2 배출 규제 : 2021년 110.1g/km → 2025년 93.6g/km으로 제한(15% 강화)

2025년 자동차부품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부품	230	-1.6	230	0.2	228	-0.9

주 : MTI 742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전기차 캐즘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는 않겠으나 주요국의 중국산 EV 및 부품 관련 규제 강화는 우리 기업에 기회로 작용**

2025년 자동차부품 수출 환경

품목	세부 내용
업계 동향	■ **국내 완성차 브랜드 2026년 양산 목표로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개발 계획** - 2026년 북미와 중국에서 양산해 11만대 이상 판매 목표 * 중국의 리오토는 EREV 차종인 L7을 작년 약 38만대 판매, 화웨이와의 기술제휴 기업인 세레스는 약 9만대 판매. 중국은 샤오미를 비롯해 개발·양산 중인 EREV가 약 2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국내 완성차 브랜드 중국 광저우에 수소연료전지 공장 설립('23.6)** * 중국 정부는 수소자동차 판매량 2035년 누적 100만대 목표 * 수소자동차 시장은 아직 미성숙 단계이나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서 잠재 성장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경쟁국 동향	■ **美 상무부는 중국 · 러시아산 커넥티드카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 규제안 발표('24.9)** - 소프트웨어의 경우 '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30년식 모델 또는 '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 예정 * 현대차, 도요타, GM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상무부에 공급망 전환 준비를 위해 규제 적용 시점을 최소 1년 더 유예해 달라는 의견 제출 * 커넥티드 차량 :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
유가·원자재·환율 영향	■ **최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유류 등의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기업의 제조원가에 부담** - 미국 신 행정부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보편관세 부과 등이 현실화 될 경우 글로벌 물가 상승, 중국·유럽 등 경기 회복 둔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자동차부품 수출에 악영향 우려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8 선박

■ (동향) 2024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233억 달러 예상

● 2020년 말부터 증가한 수주 물량의 인도 본격화와 신조선가 상승에 힘입어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특히 2021~2022년 다량 발주된 컨테이너선 및 LNG선의 생산 본격화로 이들의 총 선박 수출액 중 비중은 각각 46.1%, 26.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신규 수주도 높은 선가에서 이뤄져 향후 선박 수출에 긍정적

* 韓 선박 수주 현황(백만CGT) : ('21) 18.1 ('22) 16.8 ('23) 10.1 ('24.9) 8.9

*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포인트, 연말 기준) : ('21) 153.6 ('22) 161.8 ('23) 178.4 ('24.9) 190.0

■ (전망) 2025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55억 달러 전망

●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친환경·고부가 LNG선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

-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확대로 평균 수출 단가 상승 기대

● 선주국(Owner)은 유럽 비중(59.2%)이 가장 높으나 올해와 비교해 아시아(25.9%) 비중이 증가할 전망

* 선주국 비중 변화(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4.下→'25, %) : (유럽) 65.0→59.2 (아시아) 21.1→25.9

2025년 선종별 수출 전망 (단위 : 척, 억 달러, 비중 %)

	탱커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	컨테이너선	LNG선	LPG선	해양플랜트	기타
물량	25	32	50	47	16	6	10
비중	(13.4)	(17.2)	(26.9)	(25.3)	(8.6)	(3.2)	(5.4)
금액	17.4	15.7	70.7	94.7	13.6	21.8	8.4
비중	(7.2)	(6.5)	(29.2)	(39.1)	(5.6)	(9.0)	(3.5)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25년 선박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선박	218	19.9	233	7.0	255	9.4

주 : MTI 746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높은 선가 유지

- 중국의 적극적 건조 능력 확장 및 공격적 수주, 국내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 지연 및 기자재 공급 불안정, 수입 후판 반덤핑 조사 진행에 따른 원자재비 불안정 등은 하방 위험

- 한국 조선산업은 건조 능력 확대에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인 높은 LNG 운반선 등 고선가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지속할 전망

➘ 2025년 선박류 수출 환경

품목	세부 내용
업계 동향	■ **(해운시황) 가뭄으로 인해 발생했던 파나마 운하 운항 제한은 정상화됐으나 지정학적 위기(우-러 전쟁, 홍해 위기 등)는 장기화** ■ **(발주) 선박 노후화(평균 선령 12.9년), 조선소의 제한된 선석(Slot) 확보를 위한 해운사 간 치열한 경쟁, 환경규제로 발주 증가 전망** - 온실가스 규제 대비 위한 친환경선에 대한 수요는 지속 - 다만 홍해 사태에 따른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는 내년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
경쟁국 동향	■ **(중국) 드라이도크 재가동 및 신규 건설 등 건조 능력 확대 추진, 전세계 건조 능력의 약 50%를 중국 조선소가 보유** - 지난해 인도된 선박의 51.0%를 중국이 건조, 한국은 28.3%, 일본 15.4% 생산 (UNCTAD, '24.10) ■ **(중국) 선박 생산 기술에 대해 질적 고도화 추진 지속** - 중국 조선사들은 과거 일반 컨테이너선 중심에서 최근에는 건조 난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중형 LNG 선박 수주를 늘리며 우리 기업 위협 - 특히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국영기업 중심 구조로 노사갈등 관리 수월
유가·원자재 영향	■ **(후판) 국내 철강업계, 중국산 열연강판/후판 반덤핑 제소('24.10)** - 중국산 후판 유통가격은 국내산 대비 약 15% 저렴, 올해 9월까지 국내 전체 조선용 후판 판매량 중 수입 비중이 36.8%에 달함('23년 36.9%로 역대 최대) - 내년 중순 경 판정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후판 가격에 영향
환율 영향	■ **조선산업은 수출 중심 구조 및 장기간의 건조 기간으로 인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주액(계약 선가)의 70~100%를 선물환 매도함** - 이에 따라 환율 영향은 제한적

자료 : Clarksons Research, UNCTAD,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9 디스플레이

■ (동향) 2024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 예상

- IT제품의 OLED 채용 본격화, 온디바이스 AI 확산, 유로 2024(6월)·파리올림픽(7월) 등 국제 이벤트 특수에 따른 교체 수요로 슈퍼사이클을 기대했으나 예상 하회

  - 상반기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실적 호조, OLED용 아이패드 공급 등으로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으나, 하반기 들어 중국 스마트폰 국산화 기조, AI 수요 위축 · 지연 등으로 월별 감소세 전환

  - ❶스마트폰은 AI 적용 지연에 따른 기대감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감소, ❷IT 제품은 투스택탠덤 등 첨단 기술 적용 확대로 173% 증가, ❸TV는 미국 유럽 중심 수요 확대로 14.3% 증가(1~9월 누계 기준)

- LCD에서 OLED로 사업 전환에 따라 모듈 공장이 위치한 중국, 멕시코, 인도向 수출 증가
  * 국내에서 생산된 패널(셀)은 후속 공정 수행을 위해 모듈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중국 등으로 수출

■ (전망) 2025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95억 달러 전망

- 스마트폰 저온 다결정산화물(LTPO) 등 고부가가치 패널 적용 증가, 중·대형 OLED 채택 확대, TV 시장 수요 개선 등으로 수출 증가 예상

  - 윈도우10 업데이트 종료, 애플 인텔리전스 본격화(현재 미국 한정 사용) 및 아이폰 시리즈 전 모델 LTPO 적용 등 영향으로 전방산업 수요 개선 기대
    * '25년 글로벌 OLED 시장 성장률 전망(옴디아, '24.2Q, %) : (스마트폰) 5.1 (LTPO) 23.7 (IT) 18.4 (TV) 2.7

- OLED 모듈 공장이 위치한 대베트남 수출 비중은 약 70% 내외 수준으로 확대되고 LCD 모듈 비중이 높은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 '25년 디스플레이 수출 성장률 전망(%) : (OLED) 7.7 (LCD) -8.7

↘ 2025년 디스플레이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디스플레이	186	-12.1	188	1.3	195	3.6

주 : MTI 8361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①온디바이스 AI 본격화에 따른 교체 수요 발생, ②AI 적용 확대에 따른 고부가가치 패널 LTPO 적용 확대, ③IT·TV 등 중대형 분야의 OLED 적용 증가 예상

↘ 2025년 디스플레이 수출 환경

품 목	세부 내용
업계 동향	■ **국내 패널 기업은 스마트폰 및 중·대형 분야에서 OLED 시장 리드 유지 전망** - (스마트폰) 아이폰 시리즈 전 모델의 LTPO 채택 강화로 고부가가치 패널 공급 증가 및 경쟁국 대비 높은 양산성 등으로 공급 물량 우위 지속 예상 - (IT) TV용 OLED 생산수율 개선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아이패드용 태블릿 공급 물량 증가, 노트북·모니터 제품의 OLED 확산 지속으로 OLED 수출 증가세 예상 ■ **OLED 시장 확대 가속화, 완성차·항공기 제조사와 협력으로 신시장 선점** -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스마트폰·TV 패널 공급 확대, 차세대 OLED 투자, 완성차·항공기 제조사와의 협력 등으로 신시장 선점 노력
경쟁국 동향	■ **(중국) '24년 세계 LCD 생산능력의 약 64%를 담당, 중국 기업인 BOE 및 Visionox는 높은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IT OLED 시장 진입을 위해 8.6세대 투자 발표** - Visionox와 BOE는 국내기업 대비 낮은 OLED 생산수율로 중국 현지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장, 생산 경험을 쌓아갈 전망 * Visionox는 '26년 10월 양산을 목적으로 허페이시와 550억 위안(약 10조원) 규모의 8.6세대 IT용 OLED 생산 라인 투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5월) * BOE는 '26년 12월 IT용 OLED 양산을 목적으로 B16 설비투자 진행 중
유가·원자재 영향	■ **美·中 무역분쟁이 심화할 경우 중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 - 국내 업계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갈륨, 흑연 등 품목에 대해 수급 다변화 및 대체재 활용 등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 모색 중 ■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은 패널 기업 판매 및 수익성 영향** * 아연 가격 증가율 전망(블룸버그, %) : ('24.4Q) 9.8 ('25.1Q) 18.2 (2Q) -4.1 (3Q) -9.5 * 주석 가격 증가율 전망(블룸버그, %) : ('24.4Q) 27.1 ('25.1Q) 16.6 (2Q) -3.1 (3Q) -2.9
환율 영향	■ **환율 변동은 일부 원자재 수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국내기업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해 통화선도·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해 변동성 축소** - 국내 패널기업은 생산의 95%를 해외로 수출 * 국내에서 디스플레이 셀을 생산하고 베트남, 중국 등의 우리 기업의 법인으로 수출해 모듈 공정을 거친 후 OEM社 또는 제3국으로 판매 - 환율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 세트 제품(가전 등)에 대한 시장 수요의 변동에 따라 디스플레이 생산·투자 변동

자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0 무선통신기기

■ (동향) 2024년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78억 달러 예상

● 미국向 완제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중국, EU 등으로의 수출은 완제품과 부품에서 모두 증가

* '24.1~10월 무선통신기기 품목별[1]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기타부품)20.3 (스마트폰부품)13.4 (스마트폰)8.5

- 캐나다, EU로의 완제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2023년 스마트폰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

* '24.1~10월 지역별 스마트폰 수출 증감률(전년동기비%): (加)1,323.6 (EU)69.6 (美)-83.8

- ASEAN,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부품 및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출 증가

* '24.1~10월 지역별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 증감률(전년동기비%): (中)23.8 (ASEAN)14.6 (EU)23.5

* '24.1~10월 지역별 스마트폰부품 수출 증감률(전년동기비%): (印)127.6 (ASEAN)16.6

●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출에 이어 완제품 수출도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망) 2025년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금년 대비 9.6% 증가한 195억 달러 전망

● 2025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4년 대비 3% 증가한 12억 6,000만대 예상(Counterpoint)

- (완제품) 판매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의 판매 호조세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액의 성장세가 출하량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부분품)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 기능 도입이 본격화되며 관련 고성능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데이터 전송, 사물·제스처 인식, 실시간 모니터링, 기기 유지보수 관련 예측 및 분석 등 기능 수행

● 중동 및 아프리카(MEA), 중남미,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신규 스마트폰 사용자 유입이 예상돼 중저가·고가 스마트폰을 모두 판매하는 우리 기업의 수혜 가능성

2025년 무선통신기기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대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무선통신기기	155	-10.2	178	15.0	195	9.6

주 : MTI 812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품목명(MTI):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812890), 스마트폰(812160), 스마트폰부품(812820)

■ (수출 환경) 2025년 세계 무선통신기기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

● 특히 온디바이스 AI 모듈 및 완제품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무선통신기기 수출 환경

품목	세부 내용
업계 동향	■ **2025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4년 대비 3% 성장한 12억 6,000만대 전망 (Counterpoint Market Outlook)** - 2024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비 5.0% 증가한 12억 3,000만대로 예상 ■ **폴더블·온디바이스 AI 탑재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의 호조세 지속** - 판매가 8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은 '23년 2분기 13%에서 '24년 2분기 15%로 확대(counterpoint) - '24년 2분기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 '23년 스마트폰 AI 모듈은 전체 IoT 모듈 중 6% 수준이나, '30년 25%까지 확대 예상. 특히, 생성형 AI에 이용되는 첨단 모듈은 연평균 60% 이상 성장 전망 ■ **적극적인 LLM 개발·협업이 이어지며 생성형 AI 기능 도입 경쟁 본격화** - 주요 기업은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주요 AI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스마트폰의 생성형 AI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주요 기업 생성형 AI 기술 제공 현황 : 실시간 통번역(삼성), 이미지 온라인 검색(삼성), 통화 요약(삼성, OPPO 등), 이미지·영상 제작 및 편집(삼성, 애플, OPPO, HONOR, Lenovo 등)
경쟁국 동향	■ **애플은 금년 3분기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했고 '25년 애플 인텔리전스(AI), '27년 폴더블폰을 신규 출시할 것으로 예상 (IDC, 미래에셋)** -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효과로 '24년 3분기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5,410만 대) 대비 3.5% 증가한 5,600만대 기록 (IDC) - 애플 스마트폰 판매 증가세로 금년 4분기 Honhai, Foxconn 등 애플 제품 생산 업체의 매출도 급증할 전망 (미래에셋) ■ **샤오미, 화웨이, 아너(HONOR) 등 中 스마트폰 브랜드는 저가형 제품 중심에서 최근에는 폴더블·온디바이스 AI 탑재 프리미엄 제품에서도 가파른 성장세** - '24.9월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트리플 폴더블폰 '메이트 xt' 출시 - '24년 1분기 생성형 AI 탑재 스마트폰 판매량 Top10에는 갤럭시S24 시리즈(삼성)와 함께 샤오미14(샤오미), X100(Vivo), 파인드X7(OPPO) 등이 이름을 올림 ■ **'24년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 국내 브랜드 점유율이 80%에 달함** - 중국은 '24년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6,790만 대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나, 자국 제품 중심의 시장이 점차 강화 * 中 스마트폰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24.2Q): (비보)19, (OPPO)16, (샤오미)15, (HONOR)15, (화웨이)15, (애플) 14, (기타)5 (Counterpoint)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1 섬유

■ (동향) 2024년 섬유류 수출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106억 달러 예상

● 수익성 악화, 글로벌 소비 회복 지연, 주요국 무역장벽 강화 등에 따른 생산·교역 여건 부진

- 채산성·수익성 악화로 국내 의류용·범용 소재 생산 위축, 중국산 소재와의 경합 확대,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 소비자의 자국산 제품 소비 선호 등으로 수출 감소

- 특히 국내 원사 공급 중단은 후방산업의 생산량 축소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수출량 감소(중단기적)는 물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및 국내 공급망 공동화(장기적) 초래
  * '24년 국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생산 캐파 10.7% 감소 → 수출 감소, 직물업체 수급난
  * 美 신장산 면화 거부에 따른 중국산 덤핑↑, 터키의 세이프가드로 인한 직물 수요↓

- 반면 유망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용 소재 수출은 증가
  * '24.4Q 광케이블 수요 회복세에 따른 아라미드 수출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할 전망

■ (전망) 2025년 섬유류 수출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6억 달러 전망

● 고부가 산업용 소재와 K-패션의 약진 기대

- 유망 소재 생산능력 증설분의 본격 가동으로 국내 생산 확대, 중국의 내수 부양책 강화에 따른 K-패션 수요도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
  * '25년 국내 아라미드 생산능력은 올해 대비 약 두 배 증가할 전망

- 국내 대기업 중심 친환경 섬유 개발 투자 확대, 해외 소비자들의 한국산 의류 역직구 증가세도 향후 섬유·패션 수출에 긍정적

● 반면, 범용사(PET, 나일론) 가동 중단으로 생산량 감소,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생산 확대,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리스크 등은 수출 악화 요인

↘ 2025년 섬유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대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섬유	109	-11.3	106	-3.3	106	0.3

주 : MTI 4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세계 전산업의 中 디커플링 심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안정적 해외 소싱처를 확보하는 한편 기술 초격차 등 제품 경쟁력 우위 확보가 중요**

● 글로벌 초격차(스판덱스) 및 신규 유망시장 확보(전력공급망)를 위해 친환경 소재 개발(친환경·바이오), 첨단소재(아라미드·탄소섬유) 생산능력 확충 필요

- 5G, 재생에너지, AI, 전기차 등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공급을 위해 고효율 케이블 수요 확대 전망

2025년 섬유 수출 환경

품목	세부 내용
업계 동향	■ **중국의 저가 수출에 따른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로 국내 생산 둔화, 수익성 악화, 국내산 수요 부진 악순환** ■ **국내 업계 제품 프리미엄화로 차별화 노력** - 스판덱스(크레오라) 및 타이어코드는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의류용·산업용 소재임 * 국내기업 세계시장 점유율 : 스판덱스(30%), 타이어코드(45%) - 우리 기업들은 스판덱스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확대하고 리사이클 및 친환경 제품에 대대적인 투자 진행 중 * 국내 H사는 베트남에 1조 원을 투자해 바이오 스판덱스 원료 공장 건설('24.3), 원료부터 섬유에 이르는 바이오 스판덱스 일관 생산 체제 구축(수직계열화)
공급망 다변화	■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는 고부가 국산 기능성 소재의 주요 수요처이자 국내기업의 대표적인 주문자 위탁 생산(OEM) 제품** - 국내 y사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n사의 영업권을 확보한 위탁생산업체로 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서 제품을 생산해 전세계에 납품 - 향후 인도 신규 공장 확대 및 생산기지 다변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기대
첨단소재 공급 능력 확대	■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등의 미래 산업 수요 확대에 따라 국산 산업용 첨단소재 각광** - 첨단소재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 新성장동력 가능성↑ ■ **국내기업들은 첨단소재 분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 - l사는 강원도 동해 사업장에 1.5천억 원을 투자해 해저케이블 인프라 확장 중 - k사는 폴리에스터 등 범용 소재의 생산을 중단하고 산업용 섬유와 K-패션에 업력을 집중 * 광케이블 보호재, 방탄복·헬멧 등의 핵심 소재인 아라미드의 생산시설 확충으로 전기車·재생에너지, K-방산 등에 활용성 증대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2 가전

■ (동향) 2024년 가전 수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80억 달러 예상

● 글로벌 가전 시장은 회복 중이나 선진 시장의 소비력 약화로 성장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연도별 대형 가전시장 성장률(유로모니터, %) : ('21) 9.0 ('22) -2.3, ('23) -0.5, ('24e) 0.5

-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가형 내구재인 가전 소비 회복이 지연되며 특히 냉장고, TV 등 프리미엄 대형 가전 수요가 감소

* 美 소매 판매 증감률(US Census, '24.1~9, %) : **(전자·가전) 0.6** (의류) 2.4 (외식) 5.0 (전체) 2.6

* 품목별 수출 증감율('24.1~9, %) : (냉장고) -10.9 (세탁기) 11.1 (TV) -4.3 (에어컨) -26.5

-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은 3분기 소비 여력 약화로 수출 감소 심화

* 지역별 가전 수출증감율('24.1~9, %) : (북미) -1.2 (아시아) -0.1 (유럽) 9.0 (중남미) 3.8 (중동) 13.8

* '24년 분기별 북미 가전 수출 증감율(%) : ('24.1Q) 1.4 (2Q) 4.4 (3Q) -9.3

● 가전 수출은 지난 2년간의 역성장 이후 소폭 반등하겠으나 주력 시장인 미국내 판매 둔화로 증가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전망) 2025년 가전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81억 달러 전망

● 미국 주택시장 점진적 회복 등에 따른 프리미엄 대형 가전 수요 회복 예상

- 침체된 주택시장이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다소 회복됨에 따라 대형가전 수요도 점차 개선

* 모기지 금리 전망(Wells Fargo, '24.10) : ('25.1Q) 5.95, (2Q) 5.8, (3Q) 5.65, (4Q) 5.55

* 가전시장 성장률 전망(유로모니터, %) : [대형] ('24^{e}) 0.5 ('25^{p}) 2.2 / [소형] ('24^{e}) 2.3 ('25^{p}) 2.5

● AI 가전 보급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는 북미 및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25년 지역별 대형 가전시장 성장률(유로모니터, %) : (북미) 1.6 (서유럽) 0.9 (아시아) 2.2 (남미) 5.7

2025년 가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대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가전	79	-1.0	80	0.8	81	1.1

주 : MTI 82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 글로벌 수요 회복 등으로 거시여건 개선,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가전 보급 확대에 따라 점진적인 가전 소비 증가 예상

● 높은 해상운임, 미국 신 행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과 현지 생산 확대 압력,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

➘ 2025년 가전 수출 환경

<table>
<tr><th>품목</th><th>세부 내용</th></tr>
<tr><td>업계 동향</td><td>
■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가전 보급 확대
- 최근 가전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AI로, 이를 적용한 제품·솔루션이 다양한 기기와 연계
-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첨단 신제품을 공개하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실제 기능의 편의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혁신 신제품 공개는 최소화하는 추세

➘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2024) 주요 브랜드 동향
<table>
<tr><th>구분</th><th>주요 동향</th></tr>
<tr><td>삼성전자(韓)</td><td>‘스마트싱스’를 통한 가전 제어기능 공개
SW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조</td></tr>
<tr><td>LG전자(韓)</td><td>생성형 AI를 적용한 가전 제어 스마트홈 허브 ‘씽큐 온’ 공개</td></tr>
<tr><td>TCL(中)</td><td>동시통역이 가능한 증강현실(AR) 안경 ‘레이니오 X2’ 공개</td></tr>
<tr><td>아너(中)</td><td>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결합한 AI 기기 ‘매직 V3’ 공개</td></tr>
</table>

■ 가성비 트렌드 확산
- 북미·유럽의 소비자들이 제품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며 소비수준을 낮추는 ‘트레이드 다운’ 추세
- 가성비 트렌드는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수출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LG전자, '24.2분기 실적발표)
</td></tr>
<tr><td>경쟁국 동향</td><td>
■ 중국 가전 브랜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 중국 브랜드와 수출 시장에서의 경합 심화로 제품 경쟁력 차별화 요소 필요

➘ 글로벌 주요 가전 기업 점유율 (단위 : %)
<table>
<tr><th></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메이디(中)</td><td>5.43</td><td>5.61</td><td>5.83</td></tr>
<tr><td>하이얼(中)</td><td>3.60</td><td>3.71</td><td>3.72</td></tr>
<tr><td>월풀(美)</td><td>1.91</td><td>1.84</td><td>1.34</td></tr>
<tr><td>삼성전자(韓)</td><td>1.34</td><td>1.33</td><td>1.35</td></tr>
<tr><td>LG전자(韓)</td><td>1.43</td><td>1.42</td><td>1.43</td></tr>
</table>
자료 : 유로모니터
</td></tr>
</table>

자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3 컴퓨터

■ (동향) 2024년 컴퓨터 수출은 전년 대비 67.6% 증가한 125억 달러 예상

● 컴퓨터는 저장매체인 SSD(Solid-state drive)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낸드 공급과잉 해소에 따른 글로벌 SSD 가격 회복과 함께 AI 수요 확대로 기업용 SSD 수출이 크게 증가

* 컴퓨터 하위 품목 수출 비중('24.1~9, %) : (SSD) 81.3 (컴퓨터부품) 3.9 (컴퓨터) 3.7 (프린터) 3.0

* '24년 글로벌 SSD 출하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 매출액은 97.7% 증가(가트너, '24.9)

- (기업용)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규모 AI 서버 투자 확대로 QLC(Quad Level Cell) 등 고사양 서버용 SSD 수요 확대

* '24년 구글·MS·아마존(AWS) 등 AI 서버 출하량 전년 대비 41.5% 증가(트렌드포스, '24.7)

- (개인용) PC 및 IT기기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출하량은 저조했으나 가격 상승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

* '24년 개인용 SSD 출하량은 전년비 3.9% 감소, 매출액은 54.2% 증가(가트너, '24.9)

■ (전망) 2025년 컴퓨터 수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35억 달러 전망

● 내년도 글로벌 SSD 시장은 올해 대비 14.3% 성장 예상

* SSD 시장 성장률 전망(가트너, '24.9) : ('22) -5.0 ('23) -41.3 ('24^{e}) 97.7 ('25^{p}) 14.3

- (기업용) AI서버 투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고사양 SSD 중심의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 예상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스템 시장 규모(CIO, '24.10, 억 달러) : ('24^{e}) 3,180 (+34.7%) ('25^{p}) 3,671 (+15.5%)

* 올해 MS·메타·아마존·구글 4개 빅테크 기업의 투자지출은 약 2,000억 달러 규모로 대부분(약 80%) 데이터센터에 집중됐고 내년에도 투자지출을 더 늘릴 전망(씨티그룹)

- (개인용) AI PC 시장 성장, 윈도우 10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른 사무용 PC 교체 수요 발생 등으로 PC向 SSD 수요 확대 예상

* 글로벌 PC 출하량 증감률 전망(가트너, '24.9) : ('22) -16.8 ('23) -14.7 ('24^{e}) 1.6 ('25^{p}) 7.7

↘ 2025년 컴퓨터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대비 %)

품 목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전망)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컴퓨터	74	-53.3	125	67.6	135	8.1

주 : MTI 813 기준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수출 환경) 미국 빅테크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 지속, PC 등 개인용 전자기기 수요 회복 등으로 기업용·개인용 SSD 시장 모두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 예상

➘ 2025년 글로벌 SSD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소비자용	기업용	산업용	계
매출액	242	245	27	514
증가율	15.8	11.0	34.6	14.3

자료 : 가트너('24.9)

➘ 2025년 컴퓨터 수출 환경

품목	세부 내용
업계 동향	■ **AI 서버 시장 지속 성장** - IT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 견지 ■ **QLC SSD 시장 성장** - SSD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추론 프로세스에서 AI 모델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등 AI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특히, AI 추론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전력 소비가 적은 대용량 QLC(Quad Level Cell) SSD 수요 증가 *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는 현재 대용량 추론 AI서버에서 QLC SSD를 광범위하게 채택 중이며 QLC는 '24년 낸드플래시 비트 출하량의 20% 차지 전망(트렌드포스, '24.7) ■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 PC와 모바일 수요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낸드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확대함에 따라 4분기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 4분기 SSD·낸드 가격증감률(트렌드포스, QoQ%) : (기업) 0~5 (개인) -5~10 (낸드) -3~8 ■ **기업별 동향** - (삼성전자) AI PC용 SSD ‘PM9E1’ 양산 시작('24.10) - (SK하이닉스) '22 하반기 비용절감 차원에서 중단됐던 메타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다시 진행되며 기업용 SSD 공급 재개('24.10) - (WDC) 최신제품인 ‘SN5000 NVMe SSD’가 엔비디아 사용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혀 엔비디아向 공급 가능성 높아짐('24.10)

➘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단위 : %)

기업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오시아	마이크론	WDC
'24.1Q	47.4	30.4	9.9	8.7	3.5
'24.2Q	43.2	31.8	13.6	8.5	2.9

자료 : 트렌드포스('24.9)

자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REFERENCES

데이터베이스

Bloomberg(2024.11), 환율·원자재 전망

CEIC (2024.11), CEIC Global DB, https://insights.ceicdata.com/

Gartner (2024.9), Market Databook 3Q24, https://www.gartner.com/

Gartner(2024.9), Forecast: NAND Flash Market Statistics, Supply and Demand, Worldwide, 2021-2028, 1Q24 Update, https://www.gartner.com/

Gartner(2024.9), Semiconductors and Electronics Forecast Database, Worldwide, 1Q24 Update, https://www.gartner.com/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24.11), FRED Economic Data, https://fred.stlouisfed.org

Petronet(2024.11), 국제원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

국제금융센터, 금융지표, https://www.kcif.or.kr/main.do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2024.10), https://stats.koreaexim.go.kr/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11), 자동차산업 동향통계 시스템, http://stat2.kama.or.kr

한국은행,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언론자료

한국은행(2024.10), “2024년 3/4분기 국민소득(속보)”,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4.11), “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논문 및 보고서

IMF(2024), "The Global Economy in a Sticky Spot",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4

IMF(2024), "Policy Pivot, Rising Threats",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OECD(2024), "An unfolding recovery",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4

OECD(2024), "Turning the corner",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4

World Bank(2024),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4"

World Bank(2024),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4"

WTO(2024),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April 2024"

WTO(2024),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October 2024"

도원빈(2024),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효과”, TradeBrief No.6,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우종 외(2024),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TradeFocus No.26, 국제무역통상연구원